



이화의 활발

1994 · 10월호

해방이화 제26대 총학생회

대학은 순수의 공간이어야 한다
 균형이 맞습니다
 여성인권의 현주소
 天上天下 唯我獨尊 至尊無上
 재즈와인과 허수아비
 배낭속의 자유를 담고
 소설은 다른 곳에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1월호 10월호!...

이화의 활발

1994 · 10월호



- 표지설명
추상화란 어차피 그림을 보는
이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기.
나름이다. 그러나 추상화를 보고도
단순한 연상이 아닌 진지한 고민을
할 수 있다면 진정한 지성인이라
불리울 수 있을 것이다.
- 표지제작 : 이지연(서양화, '92)

우리만의 **얘기로**

〈이화의 활발〉은 이번 호를 제외하면 이제 마지막 단 한 번의 발행만을 남겨놓고 있다. 이런 때에 발간 초기에나 쓸 법한 편집자의 변을 주저리 주저리 적게 된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지난 한 학기 3회를 발간하면서 공식적인 평가의 목소리를 듣지는 못했다. (이 점은 아직도 26대 총학생회 편집국의 과제로 남아있다.)

그러나 잡지를 읽은 소감을 말해주는 이화인은 상당히 있었다. 이들의 말은 잡지발행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당근과 채찍으로 다가왔다. -여기서 잠시 〈이화의 활발〉에 관심을 보여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 그러나 한편 26대 총학생회가 왜 〈이화의 활발〉을 발행하는지 잘 알지 못한 채 잡지내용을 평가하는 말들도 우리에게 상당히 많이 전해져 왔다. 이 또한 정식으로 발행의도를 설명하지 편집국의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렇게 뒤늦게나마 그 이유에 대해 변명 아닌 변명을 하고자 한다.

‘어떻게 하면 이화를 활발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 말은 26대 총학생회가 가진 기본적인 문제의식이었다.

‘활발의 시작은 애초부터 반란이었다.’
이 말은 지난 겨울부터 편집국을 자극하고 있었다.
활발한 이화를 위해서는 반란이 필요했고 이러한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자극제가 절실했다. 지금까지의 나에 대한 반란.

더 나아가 학교, 사회에 대한 반란.
반란은 단순히 무조건적으로 거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무언가 창조적이고 생산적이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결코 망각하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반란이다. 왜 우리는 활발해야 하며 또한 ‘반란’이라는 말을 중요시 하는가? 그것은 우리의 역할을 규정하는 충분한 조건들이 있기 때문이다.
학생이라는 자유로움, 젊은이만의 패기.

용성거리 **는** 이화를

정혜령(본지 편집국장)

모순을 첨예하게 인식할 수 있는 여성이라는 위치. 현재 이화인을 규정하고 있는 이 조건들은 이화인들을 슬렁거리게 만들기에 충분한 것이고 또 활발해야 함을 어떤 의무감으로까지 느끼게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역할은 우리 주위 곳곳에 박혀 있는 고정관념과 이 사회에서 살아남아야만 한다는 강박관념으로 인해 소홀히 되고 있고 우리도 모르게 간과되고 있다. 젊은 여성 지성인으로서만이 그리고 더욱 가깝게는 이화인만이 공유하는 ‘이야기거리’가 있어야 함을 26대 총학생회는 절박하게 느꼈다.

그래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이화의 활발〉.
3회 발간된 〈이화의 활발〉내에는 아무런 대안없이 현실만을 나열한 글들이 꽤 실려있다. 이 점으로 인해 무책임하다는 말까지도 들은 적이 있다. 그러나 26대 총학생회 편집국이 목적으로 하는 바는 비록 대안이 없더라도 우리의 글을 읽고 여러가지 생각들을 서로서로 교환해보는 것.
〈이화의 활발〉의 어떤 글이 주장하는 입장을 이화인 모두에게 강요하고 싶지 않다. 서로 이야기를 해 보는 것. 그것 자체로 좋은 것이다. 물론 논쟁을 통해 어떤 대안을 마련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다.

〈이화의 활발〉이 가지고 있는 목적은 너무나 작지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이라. 책을 완성해 가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바로 발간을 담당하고 있는 편집국 사람들도 20년 이상을 이 사회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고정관념의 틀을 깨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화의 활발〉이 목적으로 하는 반란을 일으키기에는 어려운 목지들도 상당히 아니 어찌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
그러나 우리들은 지금도 노력하고 있으며 다음의 마지막 호까지도 우리는 노력할 것이라는 점을 자신있게 이화인들에게 말할 수 있다.

1987년 *월 **일

내년이면 중3이 되고 그 후로는 계속 공부를 해야하니까 아마 당분간 서울에 오기는 힘들 것 같다. 오늘은 엄마와 함께 이화여대 앞에 가 보았다.

텔레비전에서 본 것처럼 사람들이 많고, 길거리에는 옷장사, 약세사리 장사들로 지나다기기가 힘들 정도였다.

여대앞이라서 그런가. 난 정말이지 촌놈처럼 이리저리 두리번거리기만 했고, 그저 기억에 남는 것은 똑바로 정문까지 가는 길에 있던 리어가 상점들뿐이다.

하얀 티셔츠가 무척 싸서 하나 샀다. 집에 가면 친구들한테 이대 앞에서 산 거라고 자랑해야지. 공부를 열심히 해서 꼭 서울대를 가야겠다

멀리온 가까이

대학은 순수의 공간이다

한 상 미(원집실)

1991년 **월 **일

입학원서를 제출하려고 비행기까지 타고 서울에 왔다. 떨리는 가슴을 안고 온 이대의 첫 인상은 쓸쓸년스럽다. 나뭇잎은 다 떨어지고, 회색빛 하늘에 칙칙한 건물 색이 무겁게 나를 짓누른다.

1991년 **년 **일

입학시험을 치르는 아침, 새벽 6시30분에 이모택을 나갔다. 그나마 전철이 다니니까 나는 누구처럼 경찰차를 타고 고사장에 입장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다. 지하철 이대역의 에스컬레이터는 정말 길었다. 캄캄한 새벽에도 선배들이 나와서 용원을 하던데 우리 고등학교 선배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학교안에 다리가 있는 것은 참 신기했다. 거기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건네준 커피를 마시며 고사장에 들어섰다. 뉴스에서는 시험이 쉬웠네. 어려웠네 잘못 떠든다. 이제 하늘에 내 운명을 맡길 때인가 보다.

1992년 *월 *일

지금은 10시 50분. 무지하게 배가 고프는데 먹을 게 없다. 하지만

10분동안 밖에 나갔다 온다는 것은 너무 무리한 일이고, 점호에 맞추지 못한다면 크게 혼이 날 게 분명한데 떡볶이랑 순대가 너무 먹고 싶다. 내가 항상 바라마지 않는 것은 민주떡볶이 분점이 기숙사 매점 자리나 안 되면 교문 바로 옆 자리에 생기는 것. 그렇다면 난 별 갈등없이 이 밤을 보낼 수 있을텐데... 열방으로 라면이나 꾸러 가야겠다.

1994년 2월 **일

총학생회에서 발간하는 월간지팀에 합류했다. 내가 맡은 첫 번째 취재영역은 학교앞 거리문제. 학교앞을 오가며 극도로 상업화된 모습에 실망했던 기억들을 일깨워 글을 쓸 것이다. 내가 학교앞 거리 문화에서 가장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것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언론에서 카메라를 들이대는 것. 그리고 오렌지족이니 신세대니 하면 으레 이대앞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방송인들이다. 초창기(?)에는 나

우리는 학교를 사랑한다는 대의명분을 실천하고 있고, 학교측은 그런 우리를 막는 반대 세력으로 상징하는데 그런 생각들이 얼마나 오만방자한 것들이었는지 새삼 깨닫는다.

도 텔레비전이나 신문에 내가 아는 학교앞 거리가 나오면 주위 사람들에게 으시대듯 아는 척을 했지만, 어디 그게 자랑할 꺼리인가? 세련되고 화려한 패션감각을 불러 일깨우는 학교 주변의 거리는 분명 많은 문제가 있다. 과연 내가 쓸 글이 얼마만큼의 영향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의문이기도 하지만, 일단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라.

1994년 9월 23일

학교앞 거리문제를 전담하시는 재부처 차장님을 만났다. 우리는 학교를 사랑한다는 대의명분을 실천하고 있고, 학교측은 그런 우리를 막는 반대 세력으로 상징하는데 그런 생각들이 얼마나 오만방자한 것들이었는지 새삼 깨닫는다. 우리는 젊음의 열기로 뭔가 커다란 성과가 금세 눈에 보이는 것을 원하지만, 지금의 여러 문제들이 얼마나 시간과 인내심을 요하는 것들인지 알게 되었다고 할까? 울초부터 문제제기를 할 때는 이렇게 복잡다단하고, 여러 집단의 이해가 관련되어 있을지 몰랐기에 "공원부지 확보하자!"라는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늦어도 11월초에는 개장하게 될 럭키프라자의 경우, 우리가 요구해 왔던 대형서점의 입주는 일단 힘들어 보인다. 평당 1400만원 가량을 호가하는 부지에 대형 서점이라면 적어도 30~40평은 확보해

야할 텐데 우선 부지확보하는 데만도 어마어마한 돈이 소요될 것이니까. 또 럭키프라자 앞의, 교문앞의 부지는 우리 땅으로 잠정협약은 되어있지만, 아직 럭키프라자 재개발 조합측이 정리가 안된 상태라서 이들이 어느 정도 체계를 잡을 수 있는 2~3년을 기다려야 할 것 같다고(위낙에 재개발이니 재건축이니 하는 것들이 수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연관되어 있기에 어렵고 복잡한 일들이 많다). 학교측은 지금의 그 예비부지만큼 이화교를 확장시키거나, 또는 이화교 오른쪽으로의 터널과 그만큼의 원권을 복개하여 주차공간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복개에도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물론 돈이 많으면 해결을 볼 수도 있겠지...). 지금 기차가 지나다니는 철로는 철도청 소유지이기 때문에 철도청과의 협의하에 복개비용을 전액 우리가 부

철도청과 우리 학교 모두 복개하고자 하는 문제의 가져갈 몫일 것은 분명하다



담하여 공사를 하고나서 30년 후에는 국가에 무상상환을 해야 하고, 사용기간동안에는 임대료를 철도청에 지불해야 한다고 하니 이 중상중의 비용이 모두 우리 부담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곳에 그만큼의 돈을 쏟아 부어야 하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내 대답은 "그렇다"이다.

우리가 흔히 듣게 되는 "맹모삼천지교"는 학업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고사성어이다. 서당앞에 이사를 가니 맹자같은 훌륭한 사자가 되었지만, 시장바닥이나 무덤가에서 과연 그런 인물이 나올 수 있을까? 하긴, "개천에서 용났다"란 속담을 들어 보면 주변환경이야 어찌됐든 잘난 인물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주변 상업문화와의 단절'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화교에 만약 상업 건물들이 들어선다면(이것은 이화교 복개를 주도하고 그 비용을 충당하려는 철도청의 案이라는 소식이 있다) 우리는 상업문화와 정면대치하게 된다. 그렇다고 상업문화가 우리가 무조건 쳐부셔야 할 "악의 무리"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무언가를 사고 파는 행위-그것이 물품이든 아이디어든-는 우리 사회를 굴리는 원동력임에 틀림이 없고, 나도 학교앞 가게에서 옷을 사고 분식집에서 먹으

것을 사먹고, 노래방을 가는 것을 즐기는 게 현실이니.

하지만, 상업문화와 대학문화의 이질적인 성격 때문에 이 둘은 어느 정도의 완충공간을 갖고서 공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는 게 내 생각이다. 이상주의자라고 나무래도 할 말이 없지만, 대학은 순수의 공간이어야 한다고 믿는데, 이에 비하면 상업지대는 그런 순수를 오염시킬 수 있는 여지가 너무나도 많은 터에 이들은 융합되기가 어려울 것 같다.

1994년 9월 24일

아침에는 구청으로 오후에는 행정학과 교수님께 자문을 구하러 바쁘게 뛰어 다닌 하루다. 구청 도시정비과에 가면 발전계획을 반영하는 청사진이 있을거라시던 재무처장님의 말씀을 듣고 구청을 찾았다.

요즘 들어서 부쩍 관심이 높아진 럭키프라자는 법적인 하자가 없으므로 구청의 입장에서는 허가를 내려주는 것이 당연했다고 말하

대학은 순수의 공간이어야 한다고 믿는데, 이에 비하면 상업지대는 그런 순수를 오염시킬 수 있는 여지가 너무나도 많은 터에 이들은 융합되기가 어려울 것 같다.

는데는 별다르게 반박할 수 있는 말을 찾기가 어려웠다(우리로서는 학교 주변에 그런 커다란 아파트 단지가 생기고 이로 인한 교통재중 유발 및 교통사고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이 큰 불만이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데...) 그와 더불어 현재의 북악현 시민아파트가 재건축을 하겠다며 조합설립인가를 접수했다는데 재건축과 재개발의 성격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고층건물을 짓는 것이 유리할 테니 또다시 우리 학교 앞에 새로운 산이 생길 예정이란단다. 그나마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네, 상가가 많네 해도 단층건물에 영세적인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점차 고층화되면서 그 밀도 자체가 높아지는 현실은 지금보다 훨씬 악화된 상황을 예상 가능하게 한다. 아파트 건축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에 따른 도로확충의 복안은 부재하니 그야말로 "건물은 신세대, 도로사정은 구세대"이다.

호원당 공원부지는 1960년대에 공원으로 지정된 이래 사업을 자꾸 미루자 황금에 눈이 먼 불법상인들과 세입자들이 터를 잡고 앉아서 빼지도 막도 못하는 지경에 이른 것 같았다. 공원부지 예정지 2600평중 현재 타협되기로는 반반씩, 그러니까 1300평씩 나눠 갖기로 했는데, 문제는 상인들이 건설예정인 주상복합건물(예를 들면 1~5층까지는 상가이고 6~10층까지는 아파트인 건물인데 만약 이것이 시공될 경우 10층은 거뜬히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이 수익을

맞추면서 건설되기가 힘들다고 상인들이 으름장을 놓는 데 있다. 즉 공원부지로 사용하기로 한 도로변의 땅을 차지하던가 아니면 예정지 전체에 지어야 이문이 남지 밀지는 장사는 못하겠다는 거다. 그러면서 비키지도 않으니 구청으로서는 주민을 내쫓을 수도 없고, 완전히 상인들의 '배 제라' 전술에 교착상태에 들어가게 되었다. 구청은 그러나, 상인들이 내놓은 두 가지 안을 가지고 타협할 것처럼은 보이지 않는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상인들과 거주자들의 이주비용을 구청이 부담하는 거라고 하지만, 과연 공원용지에 그만큼의 돈을 쏟아 부을 여력이 있을까?

행정학과 김현민 교수님과 만남에서 몇 가지의 가능성을 찾아



볼 수는 있었다. 김현민 교수는 사회사업학과의 이숙임, 성효현 교수님과 함께 신촌지역의 대학문화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를 하고 계시는데, 몇몇 조사결과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이대주변의 문제점과 그 원인에 관한 인식 조사에서 교통혼잡 87%, 소비성을 부추기는 상업주의의 팽배 74%, 사치를 조장하는 환경 66% 순으로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그 원인으로는 상업주의, 소비주의로 흘러가는 사회전반적인 추세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32%로 가장 높았고, 학생들의 잘못된 생활양식 및 소비성향 또는 신촌의 부심기능 확대에 따른 자연적 현상으로 본 사람은 6~7%에 그쳤다.

학생들은 이용가능한 서점이 부족하기 때문에 51%가 신촌 이외의 지역의 서점을 이용한다고 응답하였고, 의류점은 이대주변을 가장 많이 이용한다는 사람들(43%)과 이대 주변 이외의 시설을 이용한다는 사람들(46%)이 거의 대등하게 나타나 이대앞 옷가게 주 고객 대상이 이화인에 국한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대현동 지도를 펼쳐보면, 의외로 상업지대가 좁은 것을 발견하게 되는 데 북아현동 쪽으로는 국민학교와 교육청, 주거지대가 발달하고 있어 이대앞이 완전히 상업화된 공간이 아님을 볼 수 있다. 정문 앞의 큰길을 중앙에 두고 학업, 주거지대와 상업지대가 대치한 것처럼 보인다. 이미지와 실제의 괴리? 지도를 펼쳐 보며 의외로 소박한 삶을 위한 공간이 크게 자리잡은 대현동의 다른 모습을 확인하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이런 공간의 점차적인 확대를 학교 앞은 점차 대학가다운 모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다. 또, 선생님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학교앞 큰 길에 대한 보행자 전용도로 지정을 많은 사람들이 지지한다고 하니 이것도 고려해 볼 직하다.

학교 주변이 날로 상업화 되어가는 것을 막지 못 하는 중요 요인 중 주민들의 계속된 민원을 들 수 있다. 관계법에 의하면 제반 허가 사항들이 거의 단체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어떤 타협점을 찾느냐 하는것이 관건인데 여기서 민원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만오천 식구들이 살고 있는 이화는 그야말로 거대한 주민

“이화인=대현동주민”이다. 다수의 의견이 힘을 갖는게 민원이라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해 볼 만하다.

의 집단체이다. “이화인=대현동주민”이다. 다수의 의견이 힘을 갖는게 민원이라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해 볼 만하다. 결국 주민들의 갈등문제인 이대앞 거리문화 조성, 여기서 우리가 물러설 이유는 없다. 건전하고 바람직한 대학문화를 이루어내려면, 그리고 십년, 이십년 후에 상가에 파묻혀 초라한 간판을 걸고 있을 이화를 보지 않으려면 문제를 인식한 지금 행동을 시작해야 한다.

1994년 9월**일.

학생회실에서는 교문옆부지를 어떻게 이용할까 하는 논의가 분주하다. 바닥에 그림을 그리네, 만남의 장소로 이용하네, 높은 담을 쌓네(럭키프라자를 보기 싫으니까) 의견이 많은데 난 혼자 몽상을 한다.

이담에 말이야 아주 때돈을 벌어서 학교앞 가게며 뭐며 다 사 버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학교 정문은 지하철 역과 골장 연결되고, 럭키아파트는 기숙사로 써야지. 럭키프라자는 매점으로 쓰고, 웬만한 가게들은 다 이주시키고, 아예 지하철 역부터 학관까지는 에스컬레이터도 깔아 버려?

개똥!

궁합이 맞습니다

편집 실

입학을 하고 신입생이라는 어색함과 약간의 호기심으로 과방을 기웃거린다. 선배들이 무언가 하고 있구나. 과방에 어렵게 들어가 엉덩이 디밀고 앉아서 무슨 이야기들이 오고가는지 나의 이야기는 아닌 것만 같다.

학생회장 언니와 집행부 언니들은 뭔가 나와는 다른 어떤 것들이 있고 나에게 그것은 이질적인 문화로만 다가온다. 과방에서 우리들끼리의 어우러짐에도 불구하고 과방이라는 구체적인 공간은 '학생회'라는 것과 더불어 나에게서 점점 멀어져 간다. 내 것이 아닌 것만 같다.

내가 좋아하는 선배의 제안이니까 한 번쯤 과에서 열리는 행사에도 참여해 보고 여기저기 학회에도 기웃거리려 보지만 사실 그러한 것들 대부분이 '예의상' 관심으로 한때 해보는 것이다.

이렇게 자라온 거다.

선거철(과학생회 선거에 관심을 두어 편집자)이 다가올 때마다 '참여' 라든가, '관심' '외지', '바꾸어 보겠다', 혹은 더 나아가 '가까운'이라는 말들로 가득찬 대자보를 수도 없이 대하게 되고 그때마다 생각해 보게 된다.

'정말 바뀌어야 한다.'

'왜? 지금은 나에게서 멀리 있으니까.'

한 마디로 그런거다.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 학생회 이야기를 하면 언제나 나오는 편한 스토리.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학생회는 '학우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조합조직일까?

아, 드디어 너무 그럴듯한 정의가 내려지나보다

했더니 그나마 '일까?'이다. 도대체 가까우면 얼마나 가깝고 멀면 얼마나 멀기에.

사실 학생회는 나에게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저 약간 점잖음(심지어는 그렇지조차 않을)뿐이고, 학생회 사업이라는 것이 잘 되도 거기서 거기, 망해도 거기서 거기다.

그래도 묘하게 갑자기 그것이 필요할 때가 있다. 만약 많은 등록금을 냈는데도 유래없는 실습비를 하필 우리과만 따로 내라고 한다면, 아니면 대동제 때 소주락테일이라도 팔라치면, 나에게서는 반드시 파소속임이 요구되는 그런 한번쯤은 있을 법한 경우가 말이다. 대동제는 시장바닥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잘 모를 때 미리 달보고 조금씩 예입했다가 힘들때 도와주는 보험처럼 준비를 시켜줬거나, 그 서비스를 이용할 절차를 알려주었다면 문제가 간단하지만 막상 필요시에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면 그 또한 얼마나 원망스러운 일이겠는가.

선거: 권위를 인정받는 첫번째 절차?

이렇게 본다면 나에게서는 비록 멀지언정 학생회가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은 조금 있는 것 같다. 만약 대자보 문구처럼 학생회가 바뀌게 된다면 학우들 가까워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나와, 혹은 학우들과 유리되어 있다고 보여지는 학생회를 생각하면서 '바꾸겠다' 내지는 '왜,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더욱 치열해야 되지 않을까?

학생회가 학생들과 가까워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가까운' 그것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후보를 공천할 당시만 해도 그 동안 몸속에 도사리고

있던 열정이 불끈 솟아난다. 잠시 뜨거워지지만 그 다음일이라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지만은 않다. 과 학생회장 선거라고 해서 사전에 과내에서 학번간에 토론한 번 제대로 이루어진 적없고, 또 다시 몇몇은 강 건너 학생회 보기, 후보를 중심으로 모이고 나면 진지한 고민들 속에는 우선 '당선'이라는 '발등의 불'이 있는 것이다.

당선/낙선: 그 패배에서

학생회장들이 당선되고 나서 하게 되는 가장 큰 고민은 집행부를 꾸리는 일이다. 선거준비를 같이 하던 사람들이 코케임(?)을 당하기 일쑤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총회나 농활이나 대동제나 하는 행사들을 치루다 보면 도대체 공약들이 실천되고 있는가가 고민이 아니라 다음 행사준비는 또 어떻게 할까가 수침 가득 차 있을 뿐이다.

공약들은 시기마다 행사에 사장되어 버리고 과 학생회장에게 막상 집행부들과의 의사소통도 만만한 일은 아니다. 사실 학생회가 아무리 떠돌아다녀 들어주는 이도 없고 다들 가까운 학생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맞는 말이라고 동의하더니 학생회장옆에만 그림자 처럼 붙어 있으면 필하나.

여기서 더 떠돌 것도 없이 문제의식은 누구나 있다. 누구에게나. 문제는 '어떻게 실천되는가'이다.

열림과 교감

다시 돌아가 이야기 해보자. "학생회는 학우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조합조직"이라는 것으로부터 학생회의 소중함을 학우들에게 알리고자 노력해도, 해가 갈수록 알리는 편이나 그렇지 않은

편이나 반응은 그렇게 탐탁치 않다.

우리에게 결핍된 요소를 계속 아파하면서 실제로 그 결핍요소의 실체조차도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혹시 서로 다른 것을 꿈꾸고 있는 것은 아닐까?

늘 하던 얘기 한 가지만 더.

학생회는 운영하는 이들 즉, 집행부만으로는 결코 완전하지 않다는 것. 이것은 진부하고 당연한 그러나 매우 소중하고 아직까지 유효한 결론이다. 그렇다고 이것이 무조건 모든 학우들이 학생회 활동에 참여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학우들의 다양한 욕구들이 다채로운 삶을 가능하게 하듯이 학생회는 다양한 학우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수용의 범주는 과연 어디부터 어디까지 일까? 학생회를 운영하는 이들은 학우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학생회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굳게 믿기에, 이 뜻을 전하며 학생회의 행사에 많은 학우들이 오지 않는다고 불만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혹 학우들은 자신에게 어떤 불편한 일이 생겼을 때에만 학생회의 문을 두드리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동상이몽은 어쩌면 이것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혼자서 대상없이 궁합을 보게 되는 일은 없다. 그대와 내가 미래를 함께 이야기할 때야 비로소 궁합을 본다는 일이 의미있는 것이다. 이화, 작게는 **과라는 공통된 미래를 생각할 때 우리는 궁합을 맞추어야 한다. 과연 95년 학생회와 이화인들의 궁합은 얼마나 맞을까?

* 도움주신 분들-경영학과 92학번 김원정, 정치외교학과 91학번 박소현

열림과 교감

양 성 은(26대 총학생회장)

악 한달전의 일이다

학교에서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갔는데 음악대학 학생회장에게서 추가등록기간을 넘겨 등록을 하려던 음대 학생들이 등록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 다음날, 총학생회실에서 음대 학생회장에게 들은 자세한 이야기...

9월 5일 추가등록기간이 끝난 지 5일쯤 지났을 때, 음악대학 교학과로부터 미등록상태인 음악대학 학생들에게 전화가 왔다. 전화 온 날이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주 월요일에 등록을 해도 무방하다는 이야기로 들은 학생들이 월요일 아침에 등록을 하러 갔더니, 등록을 할 수 없다는 학교측의 말을 들은 것이다. 교무처에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학교가 가지고 있는 입장을 이야기했다. 원래 추가등록기간이 지나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미등록자들은 제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학생지도 차원에서 휴학을 하라는 입장을 전달한다고.

많은 이화인들이 이 문제를 잘 모르고 있었겠지만 이번에 이런 이유로 아무 계획없이 휴학을 하게 된 학생이 생각보다 많았기 때문에, 결국 이 학생들은 등록을 하게 되었다.

적은 지면에 이 사건을 이렇게 길게 설명한 것은, 이 일을 겪으면서 '학생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라는 고전적인, 그러나 매우 중요한 물음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 당시 총학생회는 학생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공식적인 대표기구로서 학교당국에 대해, 학생들의 입장에서 선처를 해 줄 것을 반복적으로 요청했다. 괴로움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학생회의 힘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인가.

학생회는 선거를 통해 그 대표성을 학우들과 사회, 학교의 다른 이들로부터 인정받게 된다. 그러나, 선거도 중요하지만 허수아비의 대표성이 아니라 권위로서 학교당국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그 다음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학생들과 학생회를 운영하는 원들 사이에서 함께 호흡하고 교감할 수 있는 무엇을 만들지 못하면 마치 두 손바닥이 엇나가서 허공을 휘젓는 모양이 되어 버린다.

일례로 1학기에 총학생회는 이화인들과 함께 학교 앞 환경정화를 위한 많은 활동을 했었다. 그 중의 하나로 신문광고기금을 모금했었는데, 많은 이들이 이대앞의 정화에 공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모금이 된 것은 2만원에 불과했다. 물론 다 지나간 이야기이고 불특정 이화인들을 대상으로 불만을 토로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다만 대부분의 대학에서 보이고 있는 학생회와 학우들 사이의 찝사랑을 '완전한 만남'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양자간의 쉽없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다. 총학생회 활동의 경험을 통해 주저리 이야기를 늘어 놓았지만, 이것은 과학생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생각한다.

과학생회는 선거에서 당선이 되고 나면 1년동안 거의 정해져 있는 싸이클에 따라 사업을 하게 된다(흔히들 학생회 달력이라고 표현을 많이 한다). 선거 때는 과원들도 호응해 주고 선거본부의 사람들

도 의욕이 넘치기 때문에 1년동안 커다란 손뼉소리가 울려 퍼지리라 기대하지만, 한달이 가고 두달이 가면서 대부분의 학생회 간부들은 학우들과 코드가 다른 것이 아닐까 돌아보면서, 힘이 조금씩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게 된다.

사실 이런 이야기는 학생회 활동을 해본 사람이라면 새로운 것이 아님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는 물을 것이다. 그래서 어찌자는 것이냐고... 정답은 아직 없다. 힘겹게 과학생회 활동을 하고 있는 간부들에게 구체적인 무엇을 줄 수 있다면 좋으련만 지금 말할 수 있는 건 아주 추상적인 이야기들이다. 당연한 이야기로 돌아가보자.

이화에는 만오천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 살아온 환경과 생각이 다른만큼 이화인들은 만오천가지 다양한 색깔을 뿜어내고 있다.

우리는 그 색깔대로 아주 다양한 공간에서 대학생활을 만들어가고 있다. 어떤 이는 학생회 활동을 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동아리 활동을 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자신의 전문적인 능력을 키우기 위해 매진하기도 하면서.

개개인의 개성이 다르다고는 하지만 우리에게 이화인이라는 공통점이 있기에, 이 터전 위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조직을 만들 수 있었다. 그리고 지금 학생회운동의 전환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기회는 위기로 부터

학생회를 운영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위기'라

학생들과 학생회를 운영하는

집행부들 사이에서 함께 호흡하고 교감할 수 있는 무엇을 만들지 못하면 마치 두 손바닥이 엇나가서 허공을 휘젓는 모양이 되어 버린다.

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누군가 말했듯이 기회는 위기로부터 싹트는 것이 아닐까? 이전의 학생회가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사회를 향해 대학의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학우들과의 코드를 맞추었다면, 이제 우리는 90년대에 맞는 활동으로 이화인들과 함께 해야 할 것이다. 우리 과의 선배, 동기, 후배들의 대표체로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은 학생회 간부들의 몫만으로 돌려질 수는 없는 것이다.

언제나 그렇듯이 주어지는 답은 없다. 현실에 발을 딛고 학생회가 해야 하는 바들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 이외에는.

이제 95년 우리과의 대표를 뽑는 선거를 시장에서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장인정신으로 맞이해 보면 어떨까? 학생회 선거에 나오는 후보들은 우리과 학우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찾는 창조적이고 의욕적인 활동으로, 유권자들은 이들에 대한 격려와 함께 내년에는 우리 과를 위해서 학생회가 무엇을 하는 것이 좋을지를 생각하면서 조심스럽게 학생회와 과원들간의 코드를 맞춰 보자.

어릴때 보았던 영화 'E.T.'에서 E.T.와 엘리어트 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서로의 손가락을 맞출 때의 떨림으로 말이다.

天上天下 唯我獨尊 至尊無上?

편 집 실



추석연휴의 대미를 화려하게(?) 장식했던 지존파 사건.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름으로 매스컴의 각광(?)을 받으며 남녀노소 불문하고 수많은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다. '인간의 잔인무도성', '사회전체의 책임', '매스컴의 선정성' 등 말들도 많았는데...

철학과의 이상화 교수님이 강의하시는 '현대사상의 조류' 수업시간에 학생들이 '지존파 사건'과 '세금횡령사건'에 대한 단상을 써서 제출했다. 짧은 시간 동안에 비슷한 듯 하면서도 다양하고 솔직한 견해들을 쏟아내었는데, 여기서는 지존파 사건에 초점을 맞추어 이화인들의 의견을 함께 나눠보고자 한다.

1. 안 느껴져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무덤덤함'을 이야기 했다. 무관심과 냉소적인 태도... 그동안 많은 굵직한 사건에 단련이 된 우리들에겐, 어쩌면 가장 솔직한 심정일지도...

*나는 너무 범죄에 익숙하다. 웬만한 일에는 무덤덤하다. 하긴 순간순간이 범죄이니까. (신방 93)

*솔직히 '지존파'에 대해선 알 수 없다. 아무 생각도 들지 않는다. 예전의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의 재탕인 듯한 식상함(?)—그들의 보도된 말들에서...), 자본주의 사회의 뒤흔림(한국사회의...), 여기에 대해서 나는 도덕적 가치를 생각할 수가 없다. 세금횡

령에 대해서는 관심없다. 한 지면에 두 사건이 대문짝만하게 나오는 것에 웃음이 나올 뿐이다(웬지는 잘 모르겠다). (서양화 91)

2. 지존파 화이팅!?

처음엔 '인간의 탈을 쓰고 이럴 수가!'라고 흥분하던 여론이 잠잠해지면서, '이 사회가 썩었기 때문'이라는,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책임'이라는 제법 성숙(?)하고 진보(?)적인 의견이 서서히 고개를 들었다.

이제까지 배운 '도덕 교과서'대로라면 틀림없이 '죽을 죄'인데, 사회에 만연한 불신의 골이 얼마나 깊은가를 짐작할 수 있었다. 심지어 "조금 더 봐줘 보지..."라는 아쉬움까지! 문득 국민학교 도덕시간에 '행을 흉한 장발장'을 두고 범죄인지/아닌지 열띤 토론하던 기억이 난다.

* 충격적이지 않았다. 옛날, 탐관오리와 부패한 양반들을 혼내주던 흥길동이나 임궽정같은 사람들이 반드시 있으리라 생각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다. 사람을 잔인하게 죽인 만큼 그들의 마음은 멍들어 있을 테니까. 그들의 멍은... (중간생략)... 차라리 오렌지족, 현대배화점 사람들을 죽였다면, 한편, 난 그들이 사람들 돈을 훔고 혼내고 보내줬으면, 죽이지 않았다면 얼마나 괜찮았을까 생각한다. (사회 91)

* 잠재되어 오던, 알고 있으면서도 드러나지 못했던 어떤 하나의 문제가 극단적으로 표출되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 바로 지존파 사건인 것 같다. 특권층의 과소비, 향락문화, 소외된 사람들의 절실한 심리적 고통, 말초감각만을 자극하기 위한 대중매체들, 그리고 서로 나눈 결집이 뿔뿔 뿔쳐 잔인함으로 표출되어 버린 거 같다. 이 사건의 보도를 지켜보면서 또 하나의 영화를 보고 있는 듯한 나 자신의 모습이 불안하



압구정동 아타족, 지존파의 중요 대상이었다.

다. 한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죽이고자 하고 그 다른 사람을 불안해하고 공포에 떨고 있다는 것은 정말이지 말이 안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그 이외의 또 다른 사람들은 한때의 관심으로 지금은 왁자지껄 화제의 중심이 되고 있지만 곧 기억속에 잠재워 버릴 것이라는 사실이 가장 불안해야 할 문제일 것이다. (가정관리 91)

* 불쌍하다. 그리고 끔찍하다. 사회적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사회에 대한 분노, 억울함... 만약 이들의 의식이 조금만 더 발전했으면, 또, 그 분노, 불평등, 부당함의 원인이 무엇지를 좀 더 인지했으면... 그랬다면 그들은 굉장한 진보적 운동가가 되지 않았을까?

(행정 93)

3. 그래도 나쁜 놈은 나쁜 놈이다.

위에서 열거된 의견들은 중요한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 지존파 사건이 사회의 책임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그들이 주장한 살인의 동기, 즉 社會 惡인 졸부들, 오렌지族, 아타族 등을 죽이고 싶었다는 말이 '명백한 진실'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들이 '사회정화(?)'에만 관심이 있고 돈에는 관심이 없었는지, 끔찍한 살인을 저질러 놓고 송고한 목적을 덧입혀 미화한 것은 아닌

지 아무도 생각지 않는다. 아니, '망각했다'는 말이 옳다. 내 신세가 하도 서럽고, '어쩌면 그렇게 가슴에 콕콕 와닿는' 얘기만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디 한 번 생각해 보자. 그토록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비싼 무기들을 어떻게 구입할 수 있을까? 또 행인 납치용으로 쓰려고 했던 냉동차의 구입은? 설마 숭고한 목표를 위해 한 푼, 두 푼 아껴서 굴주리며 모았을까? 좀 더 냉정해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사회모순과 지존파의 잔혹함은 별개의 문제이다!). 그렇다고 '연습용'으로 죽어간 사람들이 살아 돌아오는 것은 아니지만 말이다.

* 그들은 분명 하나의 소영웅주의에 스스로가 도취되어 있는 듯 했다. 그들은 그들의 행동이 어떠한 간에 사회에 하나의 센세이션을 불러 일으켰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만족을 느끼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들이 너무나 바라적하지



해체된 그랜저: 지존파는 차를 분해하듯 인물을 해체했다.

않은 가정한경우에서 사회의 불합리성을 몸으로 느끼면서 중요감을 키워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들 스스로가 자신들이 불행한 자들을 대표해서 항거한 혁명가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렇게 실제 보일 수도 있다는 사실만큼 심각하다. 대체로 이처럼 번지르르한 말로 미화시킬 수 있을만한 궤변을 갖춘 사람들이다. 지존파들은 그 궤변을 태연 자악한 태도와 분노에 찬 말투에 실어 보냄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그의 범죄동기에 공감할 수 있게끔 한다. 여기에는 언론의 영향도 크다. 범죄자들에게 너무나 많은 말할 기회를 주었고, 이것은 그들 자신의 범죄를 정당화시킬 기회를 주었음을 의미하며 결국은 소영웅

을 만든 것이다. (신방 93)

* 지존파의 행위는 너무나도 직선적이고 동물적이며 적어도 눈에 보이는 인간에 대한 존중조차도 무시하는 행위였다. 물론 사회계층적, 경제적 부조리와 유리현상에 기이한 사회적인 소산이 될 수도 있겠지만, 모든 인간이 그러한 자신의 소외된 감정을 사회구조에 있어서 우선적인 계층을 향한 무조건적인 저항의식으로 표출시킨다면 사회라고 하는 것이 무의미해질 것이다. 적어도 자신들도 사회의 일부분이라고 느낀다면(자신들이 그만큼 부당하게 당했다면), 자신이 저지른 행위만큼 우리도 부당하게 대우를 받는 게 아닌가. 그들은 본질적으로 부도덕한 것은 아니나, 그렇다고 더이상

사회적 책임으로 인한 결과인 만큼 사회적 책임으로만 묻는다면 이러한 부조리는 더 증가되며, 가치와 목적의 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아마도 중산층(중상층)인 나이기 때문에 나 나름대로의 이데올로기가 반영되었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단순히 살인으로만 해결하

려 했으며 불법적으로 탈취한 돈을 안일하게 자신들의 쾌락으로 연결시킨 점은 그들의 목적을 무색하게 할 뿐이다. 그들은 사회적 영웅도, 저 소설 속의 홍길동도 아니며, 우리는 어쩌면 물질이 '최고의 행복'이라는 물질만능주의에서 헤어나고 있지 못하는 듯 하다. 소크라테스가 만약 오늘날의 현실을 본다면 어떨까? 우리 모두에게 절제와 자기조절, 그리고 긍정적인 시각이 절실한 것이 아닐까?(불어교육 93)

4.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밍다.

위에서도 잠깐 언급되었지만, 지존파를 보도하는 언론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도 높았다. 더 자

세히, 더 짜릿하게, 더 극적으로! TV, 라디오, 신문, 잡지... 너나 할 것없이 지존파를 '스타'로 만드는데 한 몫을 단단히 했다. 마침내, 모처럼의 '세기적 특종'을 놓칠 수 없어 분주하던 언론은 지나친 선정성으로 인해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 이 사회에서 일어날 어떤 일이 언론을 통해서 하나의 인경을 쓰고 나타난다. 시청자, 구독자들을 한 겹데기가 덧입혀져서 편향적으로 보도되는 것들을 믿게 된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후, 돌이켜 생각해 보면 커다란 사건들에 대해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사건추적 및 해결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다. 즉, 과장된 사실에 영향을 받은 시민은 근본적인 해결의 기본인 진실을 제공받지 못하고 단지 언론이 심어준 인상과 정부의 결정에 따라가게 되어 버린다. '직필'을 수호하는 언론, 해방적이고 시민의 입장에서 진실을 알려내는 언론이 요구된다. (정치외교 93)

* 술적이 마치 방송국의 계절에 따른 개편을 보는 것 같았다. 이전의 늘 해오던 형식의 프로그램이지만 시청률을 위해 약간의 강도를 둔(중략) 추석날 아침뉴스를 대한 순간 그날 저녁 9시 뉴스를 대중 예감할 수 있었음을 기억한다. 앵커는 적당히 상기되고 조금은 엄숙한 표정으로 사건을 '단죄'하고 '해설'해 줄 것이고, 몇 컷의 거리 인터뷰, 흥분도 느껴지는 기자들의 단발 뉴스들, 서가를 등에 진 점잖은 학자의 사회 병리현상이나 인간성 실종에 대한 '아카데미'한 고견들... (도서 93)

5. 지존파는 인간이다. 인간은 범죄한다. 그로 지존파는 범죄한다?

이성적이고 냉철한—사회구조적인—많은 분석들 중에서 몇몇 '인간'에 중심을 둔, 어떻게 보면 기독교적인 의견들이 눈에 띄었다. '머리' 보다는 '가슴'으로 그들을 이해하려는 사람들, 우리도 같은 '인간'임을 상기시키는 사람들... 다소 감상적일 수도 있지만 마음 한 구석을 적셔오는

것이 사실이다.

* 지존파의 잔학성에 대해 놀라워하고 손가락질할 자격이 없다. 우리는 모두 공격성과 잔학성의 잠재력이 있다. 그들은 다만 공격성을 올바르게 표출하는 방법을 몰랐으며, 아무도 그들에게 가르쳐주지도 않았다. 지존파 중 한 명에게 물었다고 한다. "이 세상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은?" 자기의 검사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이유는?" "나는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맛있는 밥은 처음 먹어 보았다." 그 밥은 7,000원 가량이었다고 한다. 그 말을 듣고 참 놀랐었다. 그들은 세상에 태어나서 어떠한 친절도 사랑도 받아본 적이 없었다. 그들의 행동을 무조건 비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들의 행동을 그렇다고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아무도 결코 비난의 돌을 던질 수는 없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창녀가 사람들에게 돌을 맞으려할 때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들 중 죄가 없는 사람에게 돌을 던져라. 시간이 지나자 그들은 모두 사라졌다."

* 세금횡령사건은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무책임하게 저지른 일에 어이가 없고, 지존파 사건은 너무나도 도덕에 대해 마비상태적인 반응을 보인 그들에게 어이가 없다. 도덕의 실현은 그 수단여하에 관계없이 평가되어야 하는데, 국민의 세금을 갈취하여 여러 사람들의 노력의 댓가를 빼앗은 공무원들은 어쩌면 지존파라는, 인간이기를 거부한 그들을 만든 장본인이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소용이 없다. 즉 이 모든 것들은 소망이 없음을 의미한다. 박봉의 공무원이나, 사회로부터 괘시받아 소외당해야 했던 지존파나 이 소망, 꿈에 굶주렸던 것이다.

꿈, 소망은 실현을 전제로 존재한다. 왜 공무원은 지존파와 같은 이들의 꿈을 생각치 못했고, 왜 지존파는 어느 한 중소기업사장의 꿈을 고려하지 않았을까? 갑자기 유행가 가사가 생각난다. "어떤 이는 꿈을 갖고 살고, 어떤 이는 남의 꿈을 빼앗고 사네..."

(법학 93)

6.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범죄현장



암매장 현장에서 수습한 유골



범죄가 없다 는 이 마을에 '살인공장'이 차려졌다.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분류하다가 좀더 다른 관점에서 볼 수도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개인도, 사회도, 종교도, 언론도 아닌 관점, 글씨, 지나친 새로움을 추구하다 보면 억지가 되기도 하겠지만 아주 억지만은 아닌 것 같아 조심스럽게 펼쳐 보고자 한다.

얼마 전 문화일보에 '여성들의 수난시대'라는 사설이 실렸다고 한다. 지존파 사건에 이어 택시를 이용한 연쇄강간살이 사건까지... 집밖을 나서는 것이 두려울 정도로 많은 여성들이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다. 물론 남성 표적이 없는 것도 아니고, 여성 범죄자가 없다는 얘기도 아니다. 하지만 가련한 미녀가 흉악한 악인게 잡혀있다가 늑골한 기사에 의해 구출되는 것이 유치하고도 전형적인 범죄 드라마의 유형이듯이, 이 사회의 범죄는 '남자=가해자, 여자=피해자'라는 도식에 잘 들어맞는다. 아무런 죄가 없는 여성들이 죽어가고, 그 여성과 아무런 원한이 없는 남성들이 범죄를 저지른다. 재미있는 것은 이번 사건의 제보자도 여성이라는 사실이다.

"여자는 엄마도 믿지 말라"는 말이 유행어가 되고 있다. 여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담겨있는 말이지만, 이번 사건에는 어느 정도의 긍정성도 가지고 있다. 그 '믿을 수 없는 여자' 때문에 온 국민이 경악하는 이 사건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남자들은 여자보다 쉽게 범죄를 저지르는가? 힘이 세서? 여성들이 물리적인 힘의 차이 때문에 많이 당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게 다는 아닐 것이

다. 실상 요즘에는 소위 '지능범죄'가 많아졌다. 어쩌면 '섬세한' 여성의 손이 더 필요할 지도 모른다(?)

폭력, 살인에 대한 무감각. 나는 그 원인을 그네들의 문화에서 찾고 싶다. 어렸을 때 친구에게 맞고 오면 야단맞기 일수다. "아빠가 치료비 대줄 테니까 때려주고 와라." 온근히 폭력을 부추긴다. 밟히기 보다는 밟아야 한다. 국민학교에 가서 웬만큼 머리가 크면 각 반, 전교에서 '대장'을 뽑느라 야단이다. 물론 그 자리는 '최고의 주먹'에게 돌아간다.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면 폭력씨클에 가입하는 친구들이 늘어난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가하는 '사랑의 때'도 애청과잉이다. 대학의 동문회에 가보면 체질화되어 있는 위계질서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주먹은 법보다 가깝다. 후배의 버릇을 들이기 위해 손수 '몸을 아끼지 않는' 선배님들을 뵈 수 있다. 여자 후배에게는 늘 웃어주기만 하는 선배가 남자 후배에게는 '소문난 호랑이'인 경우도 드물지 않다. 군대에 가면 또한번 거역할 수 없는 '힘의 원리'를 체험한다.

그렇게 법과는 또다른 그들만의 세계가 있다. 수많은 공정과정을 거쳐 그들은 알아서 길 줄 아는 사회적 규격종이 되어 간다. 그만큼 억압도 많다. 우리는 밤에 타는 버스에서, 길거리에서, 술에 취한 두 남자가 사소한 말다툼으로 시작하여 '남자다움(?)'을 과시하며 혈투(!)를 벌이는 것을 종종 본다.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사생결단을 낸다. 그들은 '생명의 존엄성, 인간 존중'이라는 고귀한 명제를 모른단 말인가? 아니다. 그들은 그렇게 키워진다. 여성들이 폭력의 무풍지대에서 곱게곱게 피어나듯이(모성애-본능이나, 사회적인 것이냐에 대한 논의는 배제한다-가 여성의 '부드러움'에 한 몫하는 지도 모르겠다).

다소 주관적이고 지루한 논리의 전개가 끝났다. 말하자면, 폭력의 위계질서 속에서 수년간 단련을 받은 남성들이 사회에 대한 분노나 모순의 해결책으로 여성들보다 더 쉽게 폭력에 손을대는 지도 모른다는 것이다.(표적은 물론 처리하기 쉬운 여성일 경우가 많다.) 지존파의 행동에 대해 "나도 해보고 싶다"고 쉽게 말하는 이들을 종종 볼 수 있다. 폭력과 '사내다움' 너무나 쉽게 동의가 된다. 고등학교 때 '싸움 잘하는 형'을 동경했다는-주먹으로 토닥이는 정도가 아니라 칼부림의 수준이었다-. 너무나 정상적인(?) 친구의 말-역시 심각하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말이었다-을 들은 적이 있다. 그 친구는 거의 경악하는 날 보고 '아, 뭘 그리 놀라나' 하는 표정을 지었다.

지존파 사건의 원인을 밝히기에 앞서서, 그러한 잔인한 범죄들이 생기는 원인들을 사회구조적인 모순, 경제적 불평등 등에서만 찾을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억압적인 구조, 전세제를 지배하는 이분법적 윤리에서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억측을 해 보았다.

여성학...공사중

노수인(편집실)

지난 1학기 개강과 더불어 교양과목이 달라졌다. 그 때문에 종합시간표도 늦게 나오고, 방학기간중 수강신청을 하러 나오는 번거로움을 겪어야 했다.

'많이 변했다/변한 게 없다' 말들도 많았고, 제 목만 바뀐 같은 내용의 과목을 들으며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는 학생들과 반대로 제목이나 학수번호가 바뀌어서 '순간의 실수'를 '평생의 오점'으로 간직하게 된 학생들이 희비의 쌍곡선을 그었다.

그러나 그 말 많은 중에도 모두 부인할 수 없는 가장 획기적인 변화가 바로 '여성과 세계'의 신설이다. '여성학'과 '여성학 연구' 정도에 그쳤던 여성학 관련 과목들이 다양한 분야로 확대/심화되었고, 여성학은 3학년 과목에서 1학년 과목으로 바뀌어 개론적인 성격을 띄게 되었다. '여성학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우리학교가 뭔가 확실한 승부수를 띄웠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아직은 완전한 정착단계에 들어갔다고는 할 수 없지만, 1학기 동안 여성과 세계계열 과목들을 수강한 사람들이 모여서 나름대로의 수강소감과 평가를 교환했다.

회담(?)장소로 빌린 총학생회장실에서, 커피와 과자가 준비된 테이블 주위에 다섯사람이 마주앉았다. 처음엔 서로 어색한 표정이었으나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차츰 활발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안혜경(이하 '안'): 지난 학기에는 여성과 세계계열이 신설되면서 과목들도 다양해졌죠? 여기 모인 분들은 모두 다른 과목을 수강한 걸로 아는데 각자 그 과목을 선택한 동기가 궁금하군요.

전현경(이하 '전'): 전 1학기에 여성학 관련 과목을 세개 들었어요. (모두 경악+감탄하는 표정.) 여성학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1학년때부터 기다려왔어요. (역시 모두 '의지의 한국인, 아니 이화인'이라는 표정.) 마침 3학년이 되면서 과목이 늘어나고 시간도 괜찮길래 여성학, 성차심리학, 성문화 연구를 한꺼번에 신청했죠. 이번 기회에 공부도 확실히 하고 고민도 확실히 할 겸 주저없이 선택했어요.

오수진(이하 '오'): 우리학교 여성학은 수준이 높아요. 이전에 성의 사회학도 수강한 적이 있어요. 전 철학과 여성학에 모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철학을 가지고 여성학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가 궁금했어요.

노수인(이하 '노'): 여성학은 평소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관련서적도 많이 읽은 편이죠. 그래서, 2학년 2학기에 여성학을 들었을 때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여성'과 '일'은 좀더 특화된 분야일 것이라고 생각했죠. 여성학에서 '경제분야'가 중요시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이혜민(이하 '이'): 전 이전에 여성학을 수강했지만 지난 학기에는 시간이 맞지 않아서 수강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저 역시 다양한 분야로 특화된 것이 기뻐요. 내년 1학기에 여성학 관련과목을 수강할 생각이예요. 여성학을 수강할 때 좀더 깊이있게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죠.

사회자: 네, 여성학이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다 보니 표면적인 공부에 그치게 되고, 그래서 더 깊이있는 내용을 공부하고 싶어한 분이 많았군요. 그렇다면 특화된 각 과목의 내용이 여러분의 기대를 만족시켰나요?

노: 경제분야는 여성학 개론에서도 성차별의 중요한 원인으로 다루었기 때문에 크게 새로운 건 없었어요. 사회노동과 가사노동으로 나뉘어서 내용이 조금 더 구체적이기는 했죠.

전: 중간고사 이후에는 성문화 연구와 여성학의 내용이 거의 비슷했어요. 즉, 여러 과목을 개설했지만 특화된 부분보다는 겹치는 면이 많다는 얘기가겠죠. 사전에 강의를 맡은 교수님들끼리 각자의 커리큘럼을 교환하고 강화해야 할 내용들을 논의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텐데요.

오: 처음 시도된 과목들은 특성을 살리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여성철학은 수업에서 다루는 옛 철학자들의 여성관이 서로 너무도 비슷했기 때문에 같은 결론이 계속 반복되었죠. 수업내용보다는 학생들의 발표가 더 참신했어요.

노: '여성'과 '일' 수업시간에도 사회노동을 담당하신 조순경 선생님께서 발표할 기회를 많이 주셨는데 학생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발표하더군요. 남이 자신과 다른 의견을 발표할 경우 뛰어나와서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학생도 있었어요. 덕분에 수업이 보다 더 재미있고 신이 났죠.

노: 전 이번 학기에 '기술혁명과 여성'을 듣고

있는데, 솔직히 기술은 여성들이 소외된 분야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알게 되는 사실도 많은데, 학생들이 제출한 레포트를 보면 견해가 굉장히 다양해요. 강의를 통해 자기 나름의 결론을 도출한다고 볼 수 있죠.

사회자: 선생님의 수업보다는 친구들이 발표한 내용이 재미있었다고 하시네요. 하지만 새로 생긴 과목들의 내용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깊이가 없었나 봐요. 그렇다면 이유가 뭘까요? 시행한 첫 해이기 때문일까요?

전: 아직은 학부에 여성학과가 없잖아요. 전체적으로 여성학과를 지도하는 단위가 없어서 강사에 따라 내용이 크게 달라지는 것이 아닐까요?

사회자: 여러 과목을 한꺼번에 들으니까 어떻던가요?

전: 잘 안 들어가게 되죠(웃음). 성차심리학은 심리학에 상당히 충실했는데, 그래서 생각지도 못한 부분을 건드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는 것'과 '느끼는 것'이 다르잖아요? 일반 교양과목처럼 수업이 이론위주이고 배운 내용을 암기해서 시험을 보았어요. 생각할 만한 문제거리는 많이 던져줬지만... 이 수업도 발표하는 것이 더 재미있었어요. 뭐랄까... '우리학교 애들은 수동적'이야. 하지만 나는 안그래'하는 식의 선입견이 없어졌죠.

안: 학생들의 발표내용이 좋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여성학의 강의방식이 다른 과목과 많

참석자

안혜경(여성학과 대학원, 법학과 후): 사회자

오수진(법학과 91학번): '여성철학' 수강

이혜민(경제학과 91학번): '여성학' 수강

노수인(신문방송학과 92학번): '여성'과 '일' 수강

전현경(경제학과 92학번): '여성학, 성차심리학, 성문화연구' 수강

여성학의 분화는 필요하지만 선수과목으로 여성학을 지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다르다고들 생각하세요?

이 : 여성학은 자기 삶을 건드리는 얘기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죠. 수업시간에 일종의 '동지애'도 느낄 수 있는데, 그러면서도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해 주는 분위기에요. 제가 여성학을 들을 때는 수업시간마다 짙막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정말 가슴에 와닿는 발표들을 들을 수 있었어요. 애들이 이쁘고 사랑스러워 보이면서 수업 자체가 생활의 활력소가 되더군요.

전 : 여성문제는 남자들하고는 큰 논쟁거리인데, 우리학교 학생들끼리는 동료의식 때문인지 얘기할 필요를 별로 느끼지 않았어요. 그런데 막상 얘기를 해보니 의외로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치열하게 싸움도 해봤어요.

사회자 : 과제가 많아서 부담스럽지는 않았어요? 학년도 높은데...

이 : 과제가 많은 것은 각자의 몫이라고 생각해요. 싫으면 취소하면 그만이고요.

오 : 여성학을 들으려면 그 정도는 각오하기 때문에 부담하다거나 부담을 느끼지는 않아요.

이 : 전 자원해서 연극을 했었는데요, 각각 다른 과와 학년으로 구성된 일곱 명이 함께 삶을 나누는 한 학기였죠. 지금까지도 연락이 되고 있어요. 정말 진지하게 연극을 하고 관람을 했었어요. 극본을 우리들이 직접 썼기 때문에 가슴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었죠.

안 : 대부분의 여성학 과목은 대단위 강의인데 수강인원에 따른 문제는 없었나요?

전 : 수업이 대단위인 건 문제가 있다고 봐요. 여성학은 서로의 다른 생각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워낙 사람이 많다보니 의견교환이 힘들어요. 발표까지 하는 가능하지만 질의가 오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죠.

안 : 여성학이 선수과목이 아니었기 때문에 수업 진행에 문제는 없었나요? 말하자면 '여성철학'이니 '여성과 일'이니 하는 과목들은 여성학에서 더 심화된 내용을 다루잖아요.

전 : 성문화 연구는 읽을 텍스트가 많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었어요. 우리학교 학생들은 여성학에 대한 기본 바탕이 깔려있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여성학이 선수과목이 아니니까 세세한 부분까지 건드리느라 시간을 낭비하는 건 있어요.

오 : 수업전에 선생님께서 여성학과 철학개론의 선수여부를 확인했었어요. '안 들었으면 나가라'는 무언의 압력도 있었어요. 하지만 학년이 대체로 높고 주위들은 것들이 많아서 무난했죠. 여성철학은 철학과 과목에 가까워 어려운 편이었어요. 여성학의 분화는 필요하지만 선수과목으로 여성학을 지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젠 여성학이 여권신장의 수준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세부적인 고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사회자 : 이번엔 '여성과 일', '여성과 예술' 등 team-teaching을 하는 과목이 많았는데 그에 따른 문제점은 없었나요?

노 : 각 분야가 별로 전문적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성학에 대해 이해하는 측면이나 정도도 달랐던 것 같고, 무엇보다 사전에 두 교수님 사이에서 수업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일정한 맥이 잡히지 않았거든요. 수업방식도 확연하게 달랐죠. 중간고사 이후에는 그들 스터디나 발표도 없었고, 암기위주의 시험을 봤어요. 기존에 인식하고 있던 여성학에 대한 이미지와 많이 달랐다고나 할까요?

전 : 여성학을 공부할 수록 자기자신에게서 깨야 할 것을 많이 느껴요. 이론적인 발전만 거듭되다 보면 논쟁을 위한 '말발 키우기' 수준에 머무르죠. 어떤 친구는 '대학졸업 후엔 결혼하는 게 최고'라고 하는데... 기존의 생각과 새로운 가치관이 마찰을 일으켜서 순간순간 충격을 받아요. 타성에 젖을 때도 많고, 한 마디로 이론에 비해 실천이 따라주지 않아요.

노 : 여성학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으면 직장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들었어요. 어설픈게 아느니 차라리 아예 안 배우는 게 낫다고도 하고요. 여성학 숙제를 위한 인터뷰를 하기 위해 잡지사를 방문했다가 우리학교를 졸업한 선배에게 홀대를 당한 적이 있어요. "여성학을 수강한 적은 없지만 여성학이 어떤 학문인지 알기 때문에 인터뷰에 응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선배의 대답이었는데, 다른 사람한테 당한 것보다 더 서럽더군요.

사회자 :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일

단 과목이 세분화된 것에 대해서는 모두 환영하지만 내용은 특별히 심화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군요. team-teaching의 문제점이나 여성학을 선수과목으로 지정하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었어요. 또다른 개선점은 없을까요?

전 : 각 과목에 대한 소개를 충실히 할 필요가 있어요. 학생은 물론이고 가르치시는 교수님조차 새로 개설된 과목을 생소하게 여기는 듯 했어요. 여성학이나 각 학문의 개론들을 꼭 선수과목으로 지정할 필요는 없지만, 그 과목에 대한 소개가 구체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 : 교수님들간의 연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여성학 관련 과목을 가르치시는 교수님들끼리 모임을 만들어서 의견이나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 어떨지?

노 : 전 여성학의 역작용이 우려되는군요. 지나치게 여성학적 이론으로 무장이 되어 사회에서 별종취급을 당하거나, 어설픈게 여성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오히려 여성들을 비난하거나 하는 거요. 여성학을 배우고나서 거부감을 느끼고 핑계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마도 여성학이 삶에 재화되지 않아서 그런 거겠죠?

이 : 남자친구가 있는 친구들이 더 열심히 하던데요. 내용 하나하나가 가슴에 너무 잘 와닿고 당장의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인가 봐요.

사회자 : 그럼 결론은 우리 모두 남자친구를 만드자 인가요?(웃음)

전 : 학교 안과 밖에서의 처신이 양분화된 사람들도 많이 보여요. 여자들끼리의 세계와 남자가 섞



인 세계에서 행동이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여성학 강의를 남학생들에게 개방하는 것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어요. 여자들끼리 공부를 하다보니 여성학적 견해에 무조건 동조하거나 현실의 문제로 실감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다른 견해와 부딪혔을 때 쉽게 깨지게 되죠.

노 : 이유가 뭘까요? 이걸 개인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 전 성차별의 문제가 왜 생기는지 정말 잘 모르겠어요. 알면 알 수록 더 답답해지기만 하고, 한번은 씨름 사람들과 여성학 세미나를 하는데 나름대로 잘 되었다고 생각해서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런데 글썽 남자동기가 일어나면서 한다는 소리가 "그러니까 여학생들도 모두 2차 뺨박이에 끝까지 남읍시다!"였어요. 어찌나 허망하던지.

전 : 글썽요. 문화적인 것이 아닐까요? 아주 오랜 기간동안 쌓여진 가부장제의 폐해라던가.

이 : 이 세계는 이분법적인 가치체계가 지배하고 있어서 사람들은 모든 것을 우열의 논리로 나누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러한 사회속에서 여성들은 열등한 부류로 치부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 뒤엔 우리학교의 교과과정보다는 여성학 일반에 대한 대화가 오고갔다. 교과과정에 대해서는 신

랄하게 비판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이 이 사회전반에 뿌리내린 가부장적인 문화, 여성학의 위상 등 본질적인 문제에 접했을 때는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 모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은데 언제나 걸들면서 순환을 한다. 이걸 앞으로 긴 시간동안 우리모두가 풀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접어두기로 하고...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다. 명실공히 '세계 最大(最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의 여자대학인 이화여대에서, 우리자신-여성-에 대해 그리고 이 세계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이왕 잡을 거 제대로 도(?)를 닦아서, '사람' 보다는 남자와 여자 모두를 목조르고 있는 '성차별의 귀신'을 잡는 곳을 벌여보자. 그러기 위해서는 단지 수동적인 자세에서 수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통해 수업을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 불만이나 요구사항은 입안에서만 맴도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분출되어야 한다. 이것 또한 실천의 작은 첫 걸음이 될텐데... 이화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자, 사회도 변화시킬 수 없나니... 여성학은 대학에서 머리와 책으로만 하는 이론의 학문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서 '가슴과 발'로 하는 실천의 학문이기 때문이다.

매년 이맘 때면 이화인은
이 주간을 기억한다.

이화 여성 주간
10월18일~22일

이화인을 부르는 행사들
성교육, 여성영화제, 연극제, 강연회

여성인권의 현주소와 제2의 노예해방 시작

최은순(우조고 사건담당 변호사)

1. 머릿말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이라고 명명되는 사건으로 인하여 '성희롱'이라는 용어와 그것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생각하고 토론하는 것이 더이상 우리에게 생소한 것은 아니다. 신문지면과 방송은 연일 마치 스포츠중계하듯이 이 사건을 보도하였고 직장에서도 술집에서도 가정에서도 어디서고 이에 대한 화제가 끊이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1심 판결결과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듯이 자명한 것이었다고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번의 판결은 성희롱의 직접적인 가해당사자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한 것 이외에는 아무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세상에서 어떤 위장잔란한 논리도 정당화할 수 없는 것이 성희롱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는 재판을 통해 드러난 원고의 주장대로 간주하자면 지극히 간단하다. 화학과의 특정기기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그 기기담당조교에 대해 실질적으로 임면권을 가지는 모교수가 지속적으로 원고에게 성적인 괴롭힘을 가하다가 성적 의도가 통하지 않자 사실상 책임용이 되었다고 신뢰할 만한 시점에서 해임해 버렸다는 단순한

사실이다. 다만, 이러한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서 다른 재판과 마찬가지로 증거에 의해 이를 뒷받침해 나가는 과정이 이번 재판이었던 것에 불과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판결 후의 술렁거림은 재판의 전과정에서의 쟁점과 심리내용 및 판결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황 탓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런 무지상태에서의 감정적 토론을 부채질한 것은 물론 언론의 책임이 크다. 특히 일부 언론은 성희롱의 본질에 관한 것에는 일부러 눈을 감았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남녀간의 개인적인 문제로 이번 판결을 회화화시키면서 일상적인 친밀감의 표현 및 농담과 성희롱의 구분선에 초점을 집중시켰다. 그러면서 직장분위기의 경색과 남성의 신체와 행동의 자유를 이 판결이 엄청나게 제약하는 것처럼, 남성 3불(不) 즉, '함부로 보지도, 말하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외치기도 하였다.

그동안 숨겨진 성희롱 남녀평등을 실현하여 인간다운 삶을 구현하도록 해야하는 당위론적 측면에서 보자면, 이런 폭넓은 과장과 술렁거림은 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가장 우

선시되어야 할 토론의 장으로서는 천재일우의 좋은 기회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사회의 현주소, 특히 여성인권의 현주소가 어디에 놓여있는가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기도 하다. 오죽했으면, 어떤 교수는 어느 신문의 칼럼에서 미국에서는 성희롱규제의 시작이 제 2의 노예해방에 비견된 예가 있다고 했을까. 그러

고 싶었지만) 피고 신모교수측이 증인에 대해서 한 주심문 내용만 보도하면서 마치 항소심에서 대역전극이 벌어진 것인양 보도하였다. 그랬다가 '서울대조교성희롱사건 대책위원회'로부터의 강한 항의와 함께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까지 당하고 말았지만 말이다. 이렇듯이 이번 항소심에서는 피고 신모교수의 원심 인정의



특히

일부언론은 성희롱의 본질에 관한 것에는 일부러 눈을 감았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남녀간의 개인적인 문제로 이번 판결을 회화화시키면서 일상적인 친밀감의 표현 및 농담과 성희롱의 구분선에 초점을 집중시켰다.

면, 우리는 이제서야 제 2의 노예해방의 시작을 맞이하고 있는 것인가?

2. 제1호 성희롱 사건의 항소심 진행경과 및 쟁점

지난 8월 23일 항소심 제 2 차 변론기일에서는 피고 신모교수측의 증인이 출석하여 1심판결에 있어서 결정적인 증언을 하였던 류모씨의 증언을 탄핵하기 위해서 분부하였다. 그러나, 그 결과는 그 법정에서 출석하여 소송진행을 하였던 내가 보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문사들은 (우리나라 소송진행에 있어서 반대신문이 갖는 기술적인 측면 때문에 그 반대신문이 갖는 정확한 의미를 포착하지 못한 탓으로 善解하

성희롱 사실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강한 반격(그것의 진위여부를 따지지 않기로 한다)과 함께 원고측의 차분한 대응과 또다른 피고인 서울대 총장 개인과 대한민국에 대한 책임론기작으로 원심보다 더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법정에서의 치열함 속에서의 언론의 해프닝에도 불구하고 소송이라는 것은 여론으로 좌우될 성격이 아니고 그렇지도 않다.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이나 현저한 사실이 아닌 이상은 반드시 증명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앞으로 피고 신 모교수의 반격은 원고측이 원심에서 증명한 성희롱 사실들을 뒤집을 수 있을 정도의 반증이 있어야만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될 것이다. 다른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주장과 입증은 입증이전에 먼저 법리적인 부분의 판단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계약법 이론과 불법행위 이론을 가지고서 과연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서 성희롱의 경우에 직접 가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사용자에게나 감독자에게까지 책임을 묻는 것과 같은 그런 남녀고용평등법적 차원의 접근이 가능할 것인가? 또한 부차적으로는 피고 신모교수에 대해서 인정된 위자료 액수는 적당인가? 이것이 바로 공방의 지점이다.

3. 사용자와 감독자에 대한 성희롱에 대한 책임귀속여부

원심에서는 서울대 총장에 대하여 원고의 사용자인 대한민국의 대리감독자로서의 책임(민법 제 750 조 제 2 항)을 묻기 위해, 또 피고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직접 불법행위자로서 혹은 가해자 본인의 사용자로서의 책임 및 원고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묻기 위해 노력했었다. 각하되거나 기각되기는 했었지만... 따라서, 사용자가 대한민국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이에서 사용된 주장 전부를 일 반 사기업이 사유자인 경우에도 원용 해도 좋을 것이다.

서울대 총장 개인의 경우, 서울대학교 학칙상 교무를 통할하고 학교와 최고 책임자로 피해자인 원고와 직접 가해당사자의 사용자인 피고 대한민국의 대리감독자로서 상사 또는 동료 직원에 의한 성희롱 혹은 성폭력 행위에 의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장환경을 보장할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 구체적인 예방 의무로는 소속직원으로부터 하위급 성희

롱행위 및 성폭력행위가 위법한 것이라는 것을 주지시키고, 예방을 위한 전 직원의 교육, 고충처리기관의 설치, 신속한 조사, 시정조치, 가해자에 대한 경고 등 소속 근로자가 직무수행 중에 성희롱 행위에 의한 재해를 당하지 않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포함된다.

그런데 그는 위 의무내용에 속하는 어떠한 것도 시행하지 않았다. 특히 원고가 퇴임하기 약 2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가해당사자의 원고에 대한 재임용추천거부에 대한 시정요구를 자신에게 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했음을 알았음에도 이에 대한 진상조사를 하거나 그에게 경고하거나 그를 업무전환이나 해임건의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도 아니함으로 인해 결국 원고는 해임되기에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사전에 아무런 근거 없이 직접 가해당사자에게 과도한 제량권과 원고에 대한 실질적 임면권을 주고는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도 하지 않은 잘못도 있다. 따라서 서울대 총장은 원고와 직접가해당사자의 지휘 감독자로서 또한 그 사용자인 피고 대한민국의 대리감독자로서 자신의 직무상의 의무를 방기하여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원고의 모든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대학교의 특성상 총장은 교수에 대해 그런 구체적인 감독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물론 기각되었다(특히 재판부는 이와 관련하여 직접가해당사자에 대해서는 원고에 가한 성희롱이 성차별이라는 점을 뚜렷이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모순되게 총장책임부분에 관해서는 성희롱과 성폭력을 사적인 문제로 보고

있는 듯하다). 그리하여 항소심에서 원고측의 주된 쟁점은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가해자에 대해 정법적인 성격을 띄고 피해자에게는 피해배상을 실질화시키며 인격권의 값을 제대로 매길 수 있을만큼 위자료를 현실화시키는 문제와 함께 성희롱과 성폭력등의 본질을 개인 대 개인의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인 성차별이라는

할 주의의무를 부담 이행해야 할 입장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원고에 대한 행위는 피고 대한민국 자신이 노동환경에 배려해야 할 의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되고 그러므로써 원고의 직장환경을 악화시킨 행위로 보아 민법 제 750 조에 기한 직접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를 임용하면서부터 원



서울대 총장은 원고와 직접가해당사자의 지휘 감독자로서 또한 그 사용자인 피고 대한민국의 대리감독자로서 자신의 직무상의 의무를 방기하여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원고의 모든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점을 더욱더 현실감있게 지적하며 이를 법리적으로도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항소심에서는 있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피고 대한민국 책임 부분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 볼 수 있다. 먼저, 서울대총장의 사용자로서 그들이 직무수행중에 원고에게 가한 손해에 대해서는 민법 제 750 조 제 1 항 규정에 의해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또한 사용자로서의 책임뿐만 아니라 피고 대한민국의 원고에 대한 사용자로서 자신이 원고에게 가한 불법행위에 대해 직접 책임을 져야 한다. 즉, 사용자는 피용자에 대해 그 노동환경을 배려해야

고의 안전을 배려해야 할 의무와 그외에도 노동수행에 관련하여 공무원인 피용자의 인격적 존엄을 침해하고 그 노무제공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며 이를 적절하게 배려하여 직장에 피용자에 의해 일하기 쉬운 환경이 되도록 배려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특히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이념과 목적에 따라 남녀간의 성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의무를 부담한다. 피고 대한민국의 이러한 원고에 대한 의무의 이행보조자로서 직접가해당사자 본인과 총장은 위와 같은 노동환경 조성 및 조정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자 원고의 직장환경을 악화시킨 것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민법

제 390 조 및 391 조에 기하여 원고에 대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4. 구체적인 문제들

(1) 우리의 문화적 특수성으로 성희롱을 달리 보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

재판이 막 진행될 무렵에 언론과 일부 법률전문가들 중에서 외국에서 수입한 성희롱문제를 한국의 문화적 특수성에 비추어 보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그러나 한국의 문화적 특수성이라는 것은 별로 좋을 것이 없다. 성에 관한 문제를 거론하자면, 성에 관한 은밀함과 비공개가 그 특성이고 사회전반에 유교적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와 남아선호사상, 이로 인한 여성경시풍조가 팽배해 있다. 근대화, 산업화의 진행으로 인하여 여성의 경제참여율이 50%이상에 육박하고 우리의 법이 서구에서 발달한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의 이념을 받아 들여 인간의 존엄성과 남녀평등이 보장되도록 하고 있음에도 이런 의식은 여전하다. 이런 경제적, 법적 보장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문화적 특수성을 거론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오히려 우리의 이런 나쁜 문화적 특수성을 제거하는 것이야말로 여성의 사회, 경제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길이고 여성의 법적 제반권리와 인권을 보장하는 길일 것이다.

(2) 성희롱에서의 위자료 액수는 어떠한가?

이 사건 판결 후 주간조선에 판결에 대해 통렬히 비판한 어느 시인은 이번 판결을 여론재판이라고 하면서 마녀재판에까지 비유하였다. 그는 시

인답게 주로 위자료를 불로소득이라고 운운하면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어차피 자본주의 사회니까 그렇다 해도 동시대를 살아가는 피와 땀이 어려있는 이 고지 저 능선의 그 무수한 행한 눈의 처녀를 볼 때 참 서러운 액수..." 시인이니까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액을 불로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은 관두고라도 필자는 그가 시인임에도 불구하고 인격권에 대한 이해가 이 정도라는 데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1심 재판부는 직접가해당사자에게 내려진 3,000만원에 대해 놀랍게도 (?) 전액 지급행위를 부쳤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한 어떤 확신을 보여 준 것이라고 아전인수적으로 해석하고 싶지만, 직접가해당사자는 원고가 가집행을실행할 뜻도 없는 집행정지신청을 하여 받아들여졌다. 물론 공탁을 3,000만원 해야하는 조건으로 받아들여졌지만... 그 때 신문으로 보도된 신청서사의 항변은 "대학교수의 봉급으로 부담스럽다. 극히 적은 공탁명령으로 해달라." "권인숙사건과 이혼사건의 위자료 등과 비교해 볼 때 위자료액수의 형평성을 잃었다."는 것이었다.

우리나라의 위자료가 턱없이 낮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다. 오히려 위자료의 징벌적인 의미와 인간의 존엄 및 성희롱의 본질과 이번 사건의 중대성과 가해자와 피해자의 신분 등에 비추어 보면 적지않은 액수임에도 위자료로서 많은 금액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번 사건에서 위자료산정에 있어서의 원고측의 주장은 '피고의 행위는 적대

적인 노동환경을 조장하여 원고를 괴롭혔을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이를 이유로 원고에 대한 보복으로 실질적으로 해임시켰던 점, 직접적인 신체접촉행위를 서슴치 않았고, 그 행위는 반복 계속성을 띄었다는 점, 그리고 피고는 원고의 실질적 임면권자이고 직속상관이고 더더군다나 교수라는 점, 행위가 은밀하게 행해진 점, 피해자는 이에 대해 묵시적 명시적 거부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위법성이 매우 크며 따라서 이러한 제사정은 우리나라 법 상황하에서는 손해배상액 즉, 위자료액의 참작사유로 작용해야 할 것'이라는 것이었고 대부분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결국, 가장 쉽게 이야기하자면, 위자료는 가해자 본인의 평소 대접받아온 인격값이고 그런 인격값을 가진 자가 피해자의 인격을 손상시키고 정신적인 손해를 가한

한 것은 틀림없다. 그외에도 직장내의 성희롱을 고용상의 성차별문제로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형사적 처벌영역에 구애받음 없이 이를 고용상의 입법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더욱 적극적인 의의가 있다고 본다. (이번 사건과 마찬가지로, 경희대 학생들의 사건도 성폭력적인 측면과 교육에 있어서의 성차별측면이 함께 부각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번 사건의 판결 후, 어느 여자 변호사가 엘리베이터에서고 어디서고 남자들의 태도가 달라졌다면서 농담같이 말씀하시던 것이 생각난다. 또한 판결선고 다음날 어느 대기업에서는 회사내의 언행을 조심하라는 완곡한 표현의 지침이 간부단으로부터 전달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표면상으로 보이는 몇가지 좋은 징후는 이제 우리도

“... 어차피 자본주의 사회니까 그렇다 해도 동시대를 살아가는 피와 땀이 어려있는 이 고지 저 능선의 그 무수한 행한 눈의 처녀를 볼 때 참 서러운 액수...”

데 대한 책임액수라고 보여진다. 자신의 인격값이 3,000만원도 되지 않는다고 감히 생각할 자 누구인가?

5. 남은말

제 1 호 성희롱의 1심 판결 후에 여직원들 뽑기 위해 면접을 보는 자리에서 수치심과 심한 거부감을 불러 일으키는 저속한 질문 및 성적 발언을 하여 대한변협에 징계신청된 모 변호사에게 300만원의 과태료 징계를 내린 사건과 경희대 미술교육과 학생들의 상습적인 성희롱 스승에 대한 집단적인 항의제기도 있었다. 이번 판결이 위와 같이 형사적 처벌의 영역 밖에서, 일상적으로 광범위하게 유포되어 사실상 용인되어온 성희롱 행위에 일침을 가하고 이를 공개화시키면서 진단의 실마리를 제공

힘든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것이다. 인간의 존엄과 인격이 보장되고 성별에 따른 차별이 없는 사회, 남녀모두를 불문하고 자신의 성으로 인해 삶의 선택권이 제약받지 않는 사회의 실현은 중국적으로 성별 역할에 고루한 고정관념과 이로 인한 가부장적 의식구조 및 여성비하의식 등을 없애는 데에 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이정표를 따라 좀 더 먼 길을 찾아 나서야 한다. 여기에는 우리사회가 완전한 평등과 보다 인간적 사회로 나아가기를 희망하는 모든 자들이 동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으며,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이번 사건의 1 심판결에 대한 항소심에서의 심리의 깊이를 좀더 유심히 살펴주기를 부탁드리며 두서없는 글을 맺는다.

국제화 시대, 신한국의 인권보호 어디까지 왔나?

장 소 영(인권 운동 사망방)

한국에서 인권이 마침내 꽃을 피우다?

93년 6월,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에서 한승주 외무부장관은 "한국에서 인권이 마침내 꽃을 피우게 되었음을 기쁘게 보고드린다."라고 했다.

문민 정부가 들어선지 2년째,

"당신의 경쟁상대는 누구입니까?"

귀가 따가울 만큼 정부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이야기하고 있다. 물 한방울이라도 아껴야 한다며 독일주부를 한국의 어느 주부와 꼭짓기에 여념없는 문민정부, 자유주의의 기본이 되어야 하는 인권보호를 위해 과연 정부는 어떤 모범대상을 경쟁상대로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일까라는 의문이 끊이지 않는다.

긴 노동시간,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산재,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사라진지 오래된 노동악법, 우리나라의 열악한 노동환경은 세계 최고를 자랑해도 좋을 법하다. 한국전쟁 이후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쓴 덕인지 세계의 모범으로 떠들썩했던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기본적인 인권마저 보호받지 못한 채 피와 땀을 희생시켜야 했음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는 듯하다. 87년 그 뜨겁던 7, 8월 노동자들이 거리에서, 사업장에서 부르짖었던 구호,

'인간답게 살고 싶다!' 라는 함축된 말을...

유엔 전문기관으로 있는 국제노동기구(ILO)는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철저한 인권보호를 위한 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등 전형적인 노동기본권 문제를 비롯하여 아동노동이나 빈민층의 문제 등 사회보장과 관련된 광범위한 제약들을 설정하고 각국별로 조약과 노동기준을 이행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다양한 국제절차도 마련하고 있다.

1949년 국제노동기구에서는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조약'을 채택한 바 있다. 내용 중 몇 가지는 이미 우리에게 낯익은 것들이다. 모든 노동자와 사용자가 단체를 설립할 권리를 행사하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되는 기본적인 시민적 자유 등 광범위한 자유와 권리를 포함하고 있어 위 조약은 노동자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국제 기구 조약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보여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나 복수노조설립의 금지, 표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제 3자 개입금지 등의 현행 문제점들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지난 10월 노동운동측의 제소에 대해 국제노동기구는 "노조 지도자들에 대한 한국정부의 구속영장이 제 3자 개입금지 조항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는 노조의 자유로운 활동에 대한 중대한 제한으로 철회되어야 함을 상기시킨다."고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국제노동기구는 특히 이 결의에서 "공익사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파업권에 대해 노동위원회가 행정관청의 요청 혹은 직권에 의해 쟁의를 중재에 회부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공익사업의 파업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데 주목한다."며, "공공 운수사업, 은행사업, 방송, 통신사업등 필수적이거나 서비스 분야에 직권조항을 적용치 말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무원의 파업권을 금지하는 노동쟁의조정법을 노동기구가 정하는 원칙에 맞도록 개정할 것을 한국 정부에 촉구하며, 그 진전 상황을 계속 통보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시기, 신한국에서는 전지협 파업 등 각 사업장마다 5.6공 군사

정권보다도 더욱 지독한 공권력을 노동쟁의에 개입하여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 권고안이 있고 난 후에도 탄압일변도의 정책은 변하지 않았고, 국제화 시대에 경제개발이라는, 공공이익이라는 이름하에 노동자 인권을 계속되어 왔다. 아무리 신한국 문민정부라 하더라도 우리의 노동현실은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생존권마저 무시하고 있고,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할 만큼 수준미달임이 명백해졌다.

이 밖에 국제노동기구에서는 행정관청의 노조 활동에 대한 지배, 개입 조항들과 관련,

- 행정관청의 노조업무 조사권
- 단체협약 변경, 취소 명령권
- 규약변경, 보완 명령권

등의 규정은 노조의 자율운영에 대한 개입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전면 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제노동기구의 이 결의에서 "노동단체들은 국내법을 존중해야 하지만, 국내법은 노동기구가

정한 결사의 자유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정부가 노동관계법 개정 필요성을 인정하고 개정안을 93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통보했으면서도 95년 적절한 시점으로 법개정을 연기하기로 했다는 진술에 접하게 되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교단에 서고 싶다" 전교조 교사들의 복직신청서는 전교조 탈퇴 확인된 때문에 접수되지 않았다. 교단으로 돌아가려는 이들의 노력은 시위와 집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펼쳐지고 있다.

한국에서는 국제 인권 규약이 무용지물?

유엔 경제사회 이사회의 산하기구인 인권위원회는 1947년 1월 국제인권장전을 기초로 인권에 관한 선언과 법적인 의무를 포함하는 조약 및 조약의 실시조치의 내용을 담아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

그렇다면 국제 인권 규약은 무엇인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선택의정서'라는 세 개의 다른 조약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 7월 10일부터 비로소 이들 조약이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다. A규약에 관하여 정부는 올 6월에 최초 보고서를 제네바에서 열린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정부에서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여 내는 것이므로 제출에 앞서 이를 공개하고 민간사회의 의견을 듣는 것이 타국의 관례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이를 비밀리에 추진하고 국제인권단체를 통해 뒤늦게 국내 인권단체들이 알고 이에 대하여 활동을 펴자 궁색한 변명만을 늘어 놓았다.

국내에서는 시기가 촉박하지만 국내 인권단체와 관심있는 인권활동가 및 변호사들이 모여 반박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제네바에 직접 대표를 파견, 위원회를 상대로 활동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한다.

A규약에서는 노동, 사회보장, 장애인, 가정, 건강, 아동, 교육 등 인권의 다양한 측면을 다루고 있어 한국의 경제개발 과정에서 희생당한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어 매우 중요하다. 보통 정부의 보고서는 자화자찬으로 가득차 있어, 대안 보고서는 무척 가치가 있다.

내년 3월에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사회발전을 위한 세계정상회담"은 사회복지가 거의 전무하고, 앞서 언급한 열악한 노동현실 등에 대하여 우리 사회를 진단할 기회라 생각한다.

B규약에 대해서는 지난 독재 정권의 분위기 속에서도 국내인권단체들이 다루어 온 것이다. 지난 92년 7월 제 45차 인권 이사회에서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한국정부의 최초보고서가 심의되어 "국가보안법에 관한 단계적 철폐권고안"이 채택되었다. 당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 기독교 교회협의

회'가 협력하여 반박보고서를 제출하여 한국의 인권상황을 치밀하게 밝혔다.

국가보안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판단하여 내려진 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해 정부는 국가보안법의 철폐는 커녕 개정의 움직임도 별로 보이지 않고 있으며 국가보안법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신공안정국을 만들고 있다.

대법원이 이번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올해들어 '국가보안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실행 선고율이 10-15%에 불과하여 수사기관들이 공안분위기에 편승하여 하찮은 시국사건들에도 국보법을 이용, 기소를 남발했다는 비판을 듣고 있다. 그 구체적인 통계를 보면 국가보안법이 210명으로 실행을 받은 것은 15.7%로 90년(33건), 91년(37건), 92년(42건), 93년(63건), 94년 8월(106건)으로 문민정부는 국제 인권기준에 맞는 인권상황의 개화는 커녕 인권유린의 기록을 갱신하는 듯하다.

인권기구에서 본 노동현실과 국제노동기구의 판단과 일치한다. 국가보고제도와 병행되어 B규약에는 개인의 통보절차를 가지고 있다. B규약에서는 선택의정서를 비준한 당사국에 의하여 B규약에서 정한 권리를 침해당한 개인은 사건을 인권이사회에 통보하여 심리를 받을 수 있다. 통보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이사회는 당사국이 제출한 서면정보를 종합하여 통보를 심리하며 이사회의 견해를 당사국과 통보자에게 송부한다.

이 제도가 매우 중요하게 평가 받는 것은 이사회의 견해는 강력한 법적인 의견으로 일단 선택의정서를 비준한 국가로서는 쉽게 무시할 수 없는 도덕적, 정치적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비록 이사회의 견해를 무시하는 국가에 대해서라 하더라도 이 절차는 인권침해는 국제적으로 공개하여 확인하고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압력을 가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이다.

지난 3월 18일에 국내에서는 최초로 금호기업 전 노조위원장 손종규씨의 제소가 '통보'를 허용하는 결정을 받았다. 손씨는 91년 2월 대우조선 파업당시 전국 대기업 노조 연대회의에 참석하여 파업을 지지하고 정부의 경찰력 투입을 비난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것이 문제되어 구속되었다. 손씨는 '자신이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B규약 19조 2항에 위반하고 있다'고 92년 7월에 제소하였다. 손씨의 사례가 노동현실에서 자주 벌어지는 상황임을 볼 때 이는 우리 인권의 단면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인권 정책에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언젠가 신문에서 청소년을 상대로 '국제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해 설문을 본 적이 있다. 그때 일부 청소년들은 '국제화는 국제적 수준에 우리를 맞추는 것'이라고 답하였다. 약간은 단순한 이 대답을 보면서 국제화를 모토로 삼는 현정부의 정책수준은 '국제화'에 반한다

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다.

정부는 그동안 미뤄왔던 유엔 고문방지 협약에 가입할 예정이다. 잠 안재우기 고문등을 행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히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일반법에 대해서 가혹한 고문이 그치지 않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는 노력을 시작으로



정부가 진정한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을 펼치기를 기대한다. 이와 함께 국제노동기구의 협약에 동참하는 것이 선행이 되어야 국제화이건,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는 초석이 아닌가 싶다.

아직도 지하철의 당신의 경쟁상대는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공보처의 카피가 머리속을 맴돌고 있다. 그리고 600만 농민의 가슴에 못을 박으면서

도 우루과이라운드를 실현시키는 것이 국제화에 한발 나서는 길이라고 말하던 김영삼대통령의 발언이 얼핏 뇌리를 스치고 지나간다. 이제 그들의 질문을 되물어야 할때인 것 같다. 인권정책에 있어 신한국은 누구를 상대로 하고 있는지를...

UR/WTO 국회 조가비준 어떻게 볼 것인가

—전국연합 UR대책반 소식지 통권3호 발췌, 요약—

편집실

이제 정기국회도 시작되었고 지금 한창 진행중인 국정감사와 정부질의회가 일단락되면 11월 11일부터 본안심사를 시작으로 본회의가 시작되게 된다. 그리고 가장 치열한 논쟁의 중심에 놓여지게 될 부분이 바로 UR국회비준이 될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타결이라는 '제2의 개방'을 맞이하고 있다. 백여년전의 강제 개항에 비해 그 파급 효과는 가히 전면적이고 총체적이다. 그리고 다분히 강대국들의 이익과 압력 앞에 일방적으로 굴복한 개방 조건들이 지난 세기의 그것을 상회시킨다. 특히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진행된 지난 7년동안 미국 및 강대국들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자세는 참으로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개방과 국제화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 개방의 조건과 국제화의 내용과 방식에 문제가 있는데도 정부는 맹목적으로 그 진상을 은폐하고 있다. 예컨대,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이름으로 UR협상 과정과 실상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을 국민들과 공유하지 않으려 한다. 이같은 상태로는 어떠한 대응과 어떠한 국제경쟁력 강화도 사상누각이나 다름없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현실을 직시하는 일이다. UR찬성론자이든 반대론자이든, 또는 국제화론자이든 수구주의자이든, 중요한 것은 현실과 그 과정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고 주어진 조건 하에

서 국가 이익을 최대로 키우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UR타결 여하에 관계없이 날로 황폐되고 있는 농촌경제사회의 실상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직간접 원인을 비판적으로 파악하고 전체 국민경제와 정치 사회 문화면에 미칠 중장기 파급 효과를 객관적으로 조명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하겠다. 이같은 관점에서 바야흐로 국가의 방향이 걸린 새로운 GATT 체제인 WTO(세계무역기구)의 발족에 임하여 앞으로 전개될 국내의 경제환경변화와 그 대응책을 심각히 점검해 보지 않을 수 없다.

1. UR 다시보기—과정부터 결과까지

우루과이에서 모로코까지

1986년 9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은 7년여의 진통 끝에 1994년 4월 15일 모로코에서 125개 회원국중 111개국 정부대표가 UR최종의정서에 서명함으로써 일단 95년중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을 기약하게 되었다. 앞으로 남은 절차는 'WTO설립 협정문'과 농산물 무역협상등 17개 분야에 대한 '무역협정결과'를 1996년 말까지 각국의 정부가 적절한 관할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대통령이 서명, 제출하는 일이다.

이날 단 1분만에 우루과이 라운드 최종의정서에 서명을 마친 대한민국 대표단장, 그는 기자회견에서 '이제 UR협상은 체결되었기 때문에 재

협상의 여지는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93년 12월 15일 UR잠정타결 때도, 그리고 94년 3월 11일 국별 최종개장 이행계획서를 제출할 때도 정부당국자가 되풀이 해 강조한 주장이다. 그는 한술 더 떠 'UR합의 내용은 잃은 것보다 얻은 게 더 커 국회에서 비준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단언했다. 그 무렵 국내에서는 또 다른 정부 대표가 '이미 다자간에 합의한 UR협정문은 재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공언하고 있었다.

이 대목에서 '재협상'이란 용어의 해석부터 정부와 야당 및 시민단체간에 큰 차이가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5일에 다자간 협상에서 합의한 '농산물 협정문'을 고칠 수 없기 때문에 '재협상은 불가하다.'는 해석이다. 반면, 야당 및 시민, 재야단체들은 그 협정문에서 벗어나 잘못 협정된 '개방조건'을 수정하자는 뜻이지 '협정문을 고치자는 뜻이 아니다.'라고 발표했다. 협정문을 고치자고 주장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도, 정부당국자들은 되풀이 해 '협정문을 바꾸려는 재협상은 불가능하다.'고만 확대 보도한다. 왜 그럴까. 드니 의장의 농산물 협정문에 규정하고 있는 각종 보호장치들을 유독 우리나라만이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몽땅 내주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인정하기 싫은 것이 그 참 이유라 할 수 있다.

미국, 캐나다, 일본등은 UR협상 잠정타결시점(93.12.15)까지 개방하지 않았던 품목들은 관세화로 개방함에 있어 거의 모든 품목들에 대하여 1. 국내와 가격차이를 관세상당치로 부과하고 2. 쿼터제를 추가 적용함으로써 수입량을 억제하고 3. 최소시장접근(3-5%)을 6-10년 시행하며 4. 종가세와 종량세를 병행 실시하며 5. 농산물의 수출보조금을 허용하는등 2중 3중의 보호장치를 허용받았다.

그에 반하여 우리나라는 별로 실효성도 없는 고구마, 감자, 보리, 콩, 옥수수에 대하여 국내와 가격차인 관세상당치 부과를 허용받은 대신 쌀 다음으로 중요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유제품, 감귤등에 대해서는 미국에 의해 관세상당치의 적용을 거부당했다.

잘못된 개방조건

이같은 엄청난 협상실패는 93년 새 정부가 들어선 이래 미리미리 최소화 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 그 첫째가 89년 10월 가트로부터 합의한 바있는 '97년까지 개방하거나 또는 새로운 가트협정에 일치시킨다.'라는 조항을 지키지 못한 협상실패이다. 93년 12월 우리 협상 대표단이 쌀에 얽매어 모든 것을 다 놓친 협상 결과이다.

둘째, 90년 이후 93년까지 내리 4년간 국제수지가 다시 적자를 보였기 때문에 시민단체의 건의로 BOP 재원용(국제수지 적자를 이유로 수입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한 가트규정 18조 B항)을 가트에 신청해 놓았다더라면 최소한 모든 미개방 품목에 대한 관세상당치 적용이라도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정부는 한 때 미국도 허가받은 바 있는 BOP 재원용을 아예 신청조차 하지 않음으로써 작년 12월 미국과의 쌍무협상에서 일방적으로 물리게 된 것이다.

셋째, 93년 11월 APEC 정상 회담에 이어 한미 수뇌회담 때 당당히 우리쪽에서 쌀문제를 거론했어야 했다. 프랑스 대통령과 총리가 다투어 '영화, 비디오는 프랑스의 정신이요 문화이다. 정신을 어떻게 상품과 같이 개방하라고 하느냐?'며 끝까지 버티 마침내 개방 대상에서 제외받은 사례와는 극히 대조적이다.

넷째,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미국회를 통과한 NAFTA(북미 자유무역지대) 협정내용에는 가트규정 11조 2-C항을 적용, 닭고기, 유제품은 캐나다에서 수입제한을 허용하고 그 대신 미국과 멕시코도 중요품목에 대해 서로 인정받은 사실을 우리 정부대표들은 알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이 가트 11조 2-C 조항은 이미 6공때 캐나다와 우리대표(이봉서 상공장관)가 공동 대처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였다.

다섯째, 93년 12월 UR협상시 미국등 협상 당사국들이 제기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측은 마땅히 UR협정문에 따라 최종 개방 이행계획서를 제출할 것임을 상대국들에게 분명히 밝혀두어야 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미리 밝혀두어야 할 것을 동방 빠뜨렸다. 예컨대, 1. 농산물 수출국들에게 수출보조금의 완전 삭감을 요구하고 불응이면 이를 용징할 권리를 수입국이 갖는다는 주장(일본) 2. 일조유사시에도 수출국들이 수입국에 안정적으로 식량공급을 보장해야 한다는 조항(일본) 3. 남북한의 물자교역은 남북 기본합의서에 따라 민족 내부거래임을 선언하는 일(서독) 4. 국영무역, 부과금, 종량세등의 원용 계획을 사전에 문서로 통보하는 일 등이다.

농산물의 개방조건은 드니 의장의 '농산물무역협정문 초안'에 따르지 못하고 오직 미국 한 나라의 이해와 압력에 따라 결정됨으로써 이는 엄격히 따져 협상 정신에 위배되며 드니협정문 초안에 배치된다. 따라서 재야 시민단체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협정문의 개정이 아니라 협정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개방조건을 협정문대로 수정하라는 것이었다. 부당한 개방조건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는 적어도 두차례나 있었다. 지난해 12월 15일과 올 3월 11일, 가트에 제출한 국별 최종 개방이행계획서의 해당품목란을 빈칸으로 그냥 제출하거나 아예 UR협정문에 적시한 관세상당치, 또는 국영무역·부과금, 유예기간, 최소시장 접근을 구체적으로 적어 넣어야 했다. 그럴 경우 미국등 이해 당사국이 이의를 제기해 오면 재협상에 응하라는 것이 본래 시민단체가 말하는 재협상의 참뜻이었다.

계속되는 추가협상·재협상

다시 지난 4월 15일 모로코로 돌아가 보자. 모든 참가국 대표들은 앞으로 WTO가 새로이 출범할 때까지 어떠한 새무역 조치도 취하지 않기로 선언한 '각료 결정 및 선언'에 서명했다. 이에 고무된 우리 대표 역시 'UR은 끝났다. 재협

상은 없다.'라고 선언하였다. 그날 미국의 고어 부통령은 환경과 노동문제등을 UR과 연계하여 새로이 협상할 것을 주장하였다. 한편 미 상원은 자국의 수출을 저해하는 외국기업의 반경쟁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내용의 '반 경쟁행위 311조'를 우르파이 라운드 시행법안에 포함하도록 행정부에 제안했다(4.13). 다른 한편 미 하원의원들은 UR협상에서 미국이 양보한 항목을 보강하기 위하여 반덤핑법, 상계관세법, 외국의 불공정 상행위에 대한 대통령 제재권한 설정등 통상 관련법을 무더기로 제출했다(4.21). 미 육가공업회는 한국정부(보사부)가 유통기한이 지난 자국 산 소시지를 폐기처분 조치한데 대하여 미 무역대표부에 수퍼 301조를 발동하라고 청원하고 나섰다(4.18). 이외에도 미국은 거듭된 추가협상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냉동명태, 고등어, 오징어, 전복, 먹장어, 심지어 대구머리(자기들은 먹지 않음)의 조기수입개방을 시키고 포장육의 종량제한을 철폐케 했다. 이미 지난 1월 협상에서는 생축(소, 송아지)의 개방마저도 우리나라로부터 양보받은 바 있다. 최근에는 보리수입개방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처럼 품목별 개방조건에 대한 추가요구 재협상은 곳곳에서 시시때때로 가해지고 있다. 미국이 요구하면 수정 및 조정이 가능하고, 우리나라 농민과 재야단체들이 주장하면 재협상 불가라는 것이 정부의 공식 답변이었다. 협정문을 위반하면서 까지 미국은 각종 압력을 가해와도 옳고 옳으며, 우리는 협정문에 있는 조건에 따라 협상(개방)내용을 개정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틀렸다고 그것도 우리 정부가 앞장서 옥박지른다.

이상에서 보듯, 우리나라가 UR협상에서 가장 불리한 결과를 얻게된 데에는 정부기구내의 협상 담당자가 지난 7년 사이 6-8명이나 교체되어 전문가를 배양하지 못한 점, 정부밖의 전문가가 전혀 배제된 채 관료들만에 의한 밀실 의사결정 과정,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의 무기력과 비전문성 등의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이대로의 UR, WTO 비준

—韓牛는 동물원에서나.

정부 연구단체들이 추정한 대로라면 UR 타결로 우리나라 수출은 총 50억 달러가 늘어날 수 있다고 한다. UR 협상결과를 수출입증가 전망치로만 계산, 추정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다. 경제 전반에 미칠 분석방법을 무시한 무역수치 높음은 무의미하다. 그리고 그것마저 객관성을 잃은 방법론과 수치라는데 문제가 있다. 아물든, 그 방식을 인정하더라도 수출이익이 피해액을 훨씬 미달한다. 또다른 정부기관은 UR타결로 인해 입을 농가 순수익의 피해가 95년의 7,337 억원에서 매년 농도로 늘어날 것이라고 추정했다. (KREI, 94.4) 그리고 축산물 분야 하나만 떼어놓고 계산하더라도 그 피해액이 2001년까지 5조 6천억원(약 70억 달러)이다. 쇠고기마저 완전 개방된 그 이후의 피해예상액은 차라리 시도하지 않는 편이 더 타당하다. 왜냐하면 현재와 같은 정책이 계속되고 UR협상 조건(40% 관세 부과)대로 개방될 경우 한우는 차라리 동물원의 구경거리로 전락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활동 14개 농산물의 농가직접피해액은 가장 조수적인 계산치인 농촌경제연구원(KREI) 추정결과만으로도 약 7조 8천억원(87억 달러)나 된다. 농민 생산자들이 완전히 시장이 개방될 때까지 영농을 계속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KREA는 농업성장률은 92년의 1.5%에서 95년에는 1.1% 그리고 2001년에는 0.1%로 떨어질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수출액 50억달러 증가치는 대단히 보수적인 분석치이다.

UR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92년 8만 1천 정보, 93년 9만 2천 정보의 탈농작지가 늘어나고, 지난해 한해만도 여의도의 50배가 넘는 면적(4천 5백만평:1만 5천 정보)이 줄어들었다. 이농인구는 540.7만명이라는 통계가 얼마나 허구적인 주민등록대장상의 숫자인지를, 예컨대 자연부락당 20-40대 젊은이가 무려 25명이나 된

다는 통계가 이를 입증한다. 아물든 장차 이 나라 농업을 이끌어갈 후속인력이 고갈되어가고 있어 장래의 농업전망을 대단히 어렵게 하고 있다. 정부당국의 UR영향평가는 이와 같이 안이한 숫자와 전망위에 기초하고 있음에 문제점이 큰 것이다. 이농은 의외로 더 빠를수 있으며 그것도 얼마 남지 않은 젊은층을 중심으로 급속히 이루어질지 모른다.

농촌에 계속 주재하며 영농을 지속하는데 소요되는 지원비용 보다도 도시로의 이주에 따른 주택, 교통, 상하수도, 공해방지등 추가적인 도시 투자비가 1인당 10배가 더 소요된다. 이같은 경제전반에 미치는 손익을 계산해 보지 않고 단순히 수출증대 효과만을 계산하여 발표하는데 정부, 여당의 국정 운영능력이 의심받는 원인이 있다.

3. 국회 조기비준은 '상식'도 '필수'도 아닌 또 하나의 미숙한 판단이다.

정부와 국회는 국익 최대화와 피해 최소화의 원칙에 입각, 미국등 선진국들의 UR국회비준을 지켜본 다음 그에 상응하는 보완조치와 더불어 국회비준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선 정부와 여당은 UR/WTO 체제가 허용하는 농업과 관련된 각국 지원조치를 제도화하고 입법화하는 과제부터 먼저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미국과 EU, 캐나다, 일본등이 WTO체제 하에서도 계속하는 각종 농업 지원정책을 한국에도 적용하거나 기존의 우리 정책을 같은 명칭과 내용으로 변경시키는 작업 역시도 선행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 심화될 남북한 경제교류, 협력에 대비하여 어떤 형태로든 남북 기본합의서가 규정한 '민족내부거래' 원칙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아야 한다. 이러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이 없이는 UR국회비준은 우리나라의 농촌경제,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경제를 추락하게 하는 길임을 김영삼 정부는 알아야 할 것이다.

한국사회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경상대 교양교재 이적성 시비를 통해 본 학문사상의 자유

송 석 현(고대 철학과 대학원)

어느 철학교수의 죽음

70년대 유신 독재의 시대. 한 젊은 교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다. 당시 신문에서는 그가 연구활동이 부진하여 교수승진은 물론 제임용에서 탈락할 것을 고민하다가 자살한 것으로 보도했지만, 사실은 그것과 달랐다. 이 교수의 죽음 뒤에는 박정희 독재 정권의 집권영구화 기도가 숨어 있었으며, 교육을 통해 국민의 사상을 통제하려는 반민주적인 배경이 있었던 것이다.

당시 유신정권은 '국민윤리' 교육을 통해 그 사상적 기반을 다지고자 했고, 때문에 천국의 철학 교수들에게 국민윤리 교수라는 '작위'를 부여한다. 대학 총장이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이 젊은 교수는 총장의 주위를 빙빙 돌면서 결코 받을 수 없다는 뜻을 표명했다. 참된 학문을 하기 위해 고학을 하며 어렵게 교수가 된 그가 유신독재의 하수인이 되어 제자들의 눈과 귀를 막는 악선동을 한다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었으리라. 더군다나 그 때는 온갖 궂은 일을 하며 자신을 뒷바라지해 준 사랑하는 부인이 병으로 유명을 달리한 지 불과 몇 달 되지 않는 시기였다. 훌륭한 학자가 되기를 그토록 갈망하다 떠난 아내 역시 권력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교수생명을 연장시키는 것을 바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그는 결국 생명을 포기함으로써 학자의 양심을 지켰던 것이다. 수많은 이들이 참된 민주

화를 열망하며 사라져간 아픈 시대의 이야기이다.

정권안보의 제 1 원리

여기서 우리는 정권유지를 위해서는 학자의 양심은 말할 것도 없고 전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것쯤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정권안보 논리, 권력의 속성을 읽을 수 있다. 남한 정부 수립 이후 일관되게 이어온 정권의 '국가안보를 위한 정권안보'의 논리는 5. 6공에 이르러서는 더욱 세련화되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역할을 충실히 하는 국가보안법의 전성시대를 낳는다. 국보법이라는 무자비한 무기로 학문, 사상의 자유와 지식인의 비판적 정치참여 기능을 제거한 경우는 이루 헤아릴 수 없다. 최근의 대표적인 예로는 서관모 교수 사건, 서울사회과학연구소 사건, 그리고 조국 교수 사건 등이 있다. 그리고 얼마전 주사파 탄압의 회오리 속에서 있었던 경상대학교 교양 교재 「한국 사회의 이해」 사건이야말로 '문민'이라는 이름의 김영삼정권 역시 정권안보의 원리에 충실함을 증명해 준다.

'이제는 민주주의'라는 장미빛 꿈은 김정권의 출범 초기부터 이미 그 한계를 안고 있었다. 3당 합당으로 탄생한 김정권의 역사는 개혁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많은 걸림돌을 안고 있다. 설사 YS가 개혁의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수구세력의 반발과 이번 인천 북구청 세무비리 사건에서 볼

수 있는 관료들의 뿌리깊은 부정부패의 관행은 개혁의 길이 쉽지 않음을 보여 준다. 게다가 김정권 자신도 '고통분담',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이름의 신한국 창조 신드롬을 통해 중산층에게는 허위만족감을 주면서 노동자와 농민의 목을 조르는 정책으로, 그리고 비밀리에 자신의 파트너가 될 재벌들과의 밀회를 즐겼던 것이다. 이제 그것이 노골화되었다. 여전히 '민주주의'는 그들의 본질을 감추는 포장지 역할을 하고 있을 따름이다.

문민 정부의 허상과 본질

신공안 정국은 단지 '정국'이 아니다. 그것은 정권안보의 제 1원리에 충실한 권력의 속성을 보여주는 예이다. 우리는 조문논쟁, 박홍의 주사파 발언 등으로 분위기를 장악한

김정권이 지방 소도시 대학의 교수들을 공안물이의 희생양으로 삼아 학문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며, 이 땅을 보수·반동의 공안 이데올로기로 통일시키려는 의도를 이번의 경상대 「한국 사회의 이해」사건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면 공안정국이 '이적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한국사회 이해」는 어떤 책인가? 「한국사회 이해」는 경상대 교수 9명이 강의 교재로 사용할 목적으로 공동 집필한 책으로 지난 4년간 학생들의 호평을 받아 왔다. 이 책은 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열려진 공간에서 군사정부의 국책

과목이었던 체육, 교련 등이 교양 필수 과목에서 폐지되고 개설된 다양한 학문분야의 교과목인 「한국 사회의 이해」강의의 교재로서 현실의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즉 정치, 경제, 노동, 농업 등 한국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점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해온 한국사회과학계의 연구성과를 정리요약한 80년대 학술운동의 성과물인 것이다.



올해 초 30대 재벌 총수들과의 오찬. 삼성그룹 이진희 회장의 말에 김 대통령이 웃음을 보이고 있다.

면 강의중에도 주체사상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일관되게 취해 왔다는 것이다. 또한 이 책은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억압받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고 그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역사적 과제'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깔고 있다. 이 책의 내용에 공감하건 하지 않건간에 학자의 학문활동에 대해 정부에서 '색깔론'을 들이밀며 감놔라 대추놔라 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꺾대기로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 입으로는 화합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냉전수구세력의 논리가 한국사회를 휘젓고

공안 당국은 공안문제연구소의 감정결과 이 책이 적을 이롭게 하고 북한의 주의주장을 여과없이 받아들이는 것으로 분석하여 탄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책은 오히려 북한의 주체사상을 통해 남한 사회를 분석하는 개념이나 규정을 직접 비판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집필 교수들에 의하

있다면 지나친 비약일까?

학문적 활동에 대해 외부에서 지침을 제공하고 유도하는 것은 전체주의 사회의 전례특허인데, 헌정권은 이를 도용하여 민주주의를 무용지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기본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며, 이는 오히려 정부가 표방하는 통치이념인 자유민주주의가 허약한 기반위에 있음을 반증해줄 뿐이다. 여기서 우리는 북한을 유일사상(주체사상)에 의한 획일적 통제국가라고 비난하면서 내부적으로는 학문, 사상,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여 보수일변의 이데올로기로 물들여려는 헌정권의 자가당착적 성격을 알 수 있다.

학문사상의 자유를 위하여

민주사회는 개인의 자유와 창의성으로부터 그 생명력을 가진다. 그리고 대학은 다양한 연구와 견해에 바탕하여 사회의 문제점과 역사발전의 미래상을 폭넓게 탐구함으로써 그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학문공동체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의 자율성과 학문탐구의 다양성의 인정-학문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사회의 민주적인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다.

지금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을 통해본 한국사회의 학문사상의 자유는 어디까지 와 있을까. 권력에 순종하는 지식인은 중용하고, 비판적인 지

식인은 설자리를 주지않는 현실, 자본의 더 나은 이용창출을 위한 인력의 양성소로 전락해버린 대학의 현실에서 학문사상의 자유는 누구의 손으로 이룰 수 있을 것인가. 답은 멀리 있지 않다. 이 사건의 경우도 경상대 교수들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민교협'을 비롯한 많은 학술단체들이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활동하고 있다.

70년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 교수는 자신의 학자적 양심과 인간적 고뇌 속에서 홀로 싸웠지만 오늘날의 진보적, 양심적 지식인, 대학인들은 모든 진보세력과 연대함으로써 학문사상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을 획득할 수 있다. 지배이데올로기에 대항하는 비판이데올로기가 존재하지 않는 민주사회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

으며 중국에는 합리적인 토론보다는 폭력과 광기가 판을 치는 사회로의 회귀로 이어질 수도 있다. 민주주의의 역사는 구체제의 억압으로부터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의 권리를 쟁취하려는 투쟁의 역사였다. 우리 사회에는 역사의 유물이 되어버린 구시대의 논리로서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고 하는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 이들로부터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서 학문사상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길에 대학인들이 나서야 할 것이다.



박종서경대 총장의 '주사파' 발언은 우리사회 전반에 큰 영향력을 미쳤다.

공간은 작아도 크게 느껴요

송수희(생도관 운영위원 기독교 94)

이화 내에서 꼭 가보아야 할 곳이 지난 3월 29일 생겨났다. 눈에 뵈지 못한 위치에 있지도 않고, 크게 홍보도 되지 않은 곳이지만 요즘 이화인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가을이 되면서 책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한 권의 책을 선택하기 위해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 그 곳의 운영위원인 나에게도 생동감 있게 보인다.

생활도서관.

'아니, 중앙도서관 이름이 바뀌었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나 역시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기에, 하지만 학생관 앞에서 도서관 운영위원을 모집하는 대자보를 보고, 학생관 3층에 위치한 도서관에 들어갔을 때 첫 느낌은 작았다. 방 크기도 물론 작지만, 그것보다는 부담이 적은 공간이라는 느낌이 먼저 전해진 것이다. 한 학기가 지난 지금도 그런 느낌에는 변함이 없다. 변화가 없는 만큼 더 많은 이화인을 만나는 것에 대한 바람은 더 커진다.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부터 가장 고민한 것은 어떤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것이 좋은지, 또 꾸준히 할 수는 있을 지에 대한 우려, 바로 이런 것들이었다. 그런 고민속에서 한 달여간을 보낸 뒤에 우연한 기회에 동아리 아닌 동아리에 들게 되었다. 이제는 다른 어떤 활동보다도 보람이 있음을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지난 한 학기라는 기간은 나에게 소중한 시간이었다. 나를 돌아보고 또한 풍부히 할 수 있는 조그만 일이었지만 나를 보다 채찍질 했던 이야기를 하나 하고 싶다.

유난히 무더웠던 지난 여름, 하루에 30명쯤은 꾸준히 도서관을 들리던 생활도서관. 처음 개장 때와는 달리 갈수록 내리찍는 폭염 때문인지 도서관에는 나 혼자밖에 없었다. 해관시간은 아직 얼마 남아있었지만 더 이상 올 사람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뒷정리를 하고 있었다. 그 때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고 솔직히 나는 반갑지 않았기에 계속 책을 정리하고 의자를 넣고 내 할 일만 했다. 그런데 정리가 끝난 후에도 그 학생이 나가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이다. 그 순간, 나는 '인생극장' 주인공이 되었다. 평소 자주 들리는 회원인데 그냥 가라고 할 수는 없지. 30분만 내가 더 있으면 되는데.' '아니야, 미안하지만 오늘은 문을 일찍 닫는다고 하면 그냥 갈텐데, 내가 왜 고민해? 30분이면 책 한 권 읽을 시간은 안 되잖아?' 이런 두 마음으로 우물쭈물하는데 책을 읽던 회원이 그 책을 들고 나에게 와서 빌려가겠다고 했다. 나의 그런 마음을 아는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아무튼 그 때 이후로는 미리 문을 닫지 않게 되었다. 그 회원을 보면 항상 이 때의 일이 생각난다. 사소한 일이었지만 나만을 생각했던 그 때의 일은 아직도 반성하고 있다. 한 학기가 대학에서는 결코 짧은 시간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한편으로는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또한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나 역시 조금 더 열심히 할 것을 하는 마음이 많이 든다. 하지만 그런 후회 속에서도 보람으로 남는 것은 한 학기 동안 300여권이 넘는 책을 읽은 것이다. 도서관의 조용한 분위기에 압도되어 나도 모르게 책을 읽기 시작했고 이제는 으레 내가 있는 시간에는 책을 한 권씩 선택하고 자리에 앉게 된다. 이런 습관이 내게 가져다 준 것은 의외로 많다. 글 쓰기를 두려워하던 내가 이런 원고도 짧은 실력이나마 쓰게 되고, 감의를 들을 때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고문헌 중에는 읽어본 것도 있어 흐뭇한 마음을 갖게 되고 이렇게 여러가지 도움을 받는 생활도서관은 소중한 곳이다.

이 글을 읽고 너무 칭찬만 적어놓은 것이 아니냐고 말하는 이화인이 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솔직한 내 마음을 표현한 것일 뿐이고 만약, 확인하고 싶다면 학생관 3층에 있는 생활도서관에 들려 보기를 바란다. 직접 느끼고 보는 것만큼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게 때문이다. 보다 많은 이화친구들을 만날 것을 기대해 본다.

-이화가 바라는 도서관을 우리 이화인의 노력으로 만들 수 있기를 바라는 이화인으로부터.

재즈와인과 허수아비

이 주 향(철학과 강사)

계절감과 이미지 변신?

봄빛 찬란할 때 트로픽 오렌지를 바르고 우리의 시선을 끌었던 여인의 이미지가 이제 가을이 되어 재즈와인의 이미지로 유혹할 때 정말 계절감이 있는 세련된 여인상.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아름다움을 향하여 자신을 개발해가는 에로스의 현신을 만나는가? 그런 이미지의 주인공들을 목욕탕에서 만났다고 생각해 보자. 알아볼 수 있을까? 아는 척하는 것이 어색할 정도로 화장기가 전혀 없는 얼굴. 환상적인 음악과 함께 재즈와인으로 유혹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저 이태리 타일을 들고 있는 모습이라고 상상해 보자. 대중 목욕탕에서 그 이미지를 창출했던 여인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럽다. '이영애'라는 기표는 대부분 그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이름을 사용하는 어떤 여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화면을 통해서만 의미를 가지는 어떤 이미지를 지칭하기 때문이다.

김영애와 함께 트로픽 오렌지를

찾아갔던 여인들이 이제 더 이상 그것을 찾지 않는다. 이제 그 여인들은 "내가 변하면 세상도 변한다"고 믿으면서 나의 변화를 재즈와인의 색으로 시도, 누군가를 유혹하고 누군가에 의해 유혹당하고 싶어하는지도 모른다. 트로픽 오렌지는 더 이상 우리의 관심을 끌지 못한다.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갖는 색은 템페이션의 색으로 명명되는 스캔들 레드, 스캔들 브라운이거나 재즈와인의 색이다. 한 때 그렇게 아름답다고 여겨졌던 색이 이제 촌티를 내고 한 때는 시선을 끌지 못했던 색이 지적인 색으로 등장하는 것은 과연 계절의 변화 때문인가? 혹시 계절의 변화가 아니라 계절의 변화를 내세운 유행의 변화 때문이 아닐까?

영원한 아름다움은 없다?

사실, 새로운 유행을 창출해야 하는 것은 현대를 호소하는 기업의 생존조건이다. 현대사회는 소비사회이다. 즉, 소비가 생산의 재생산조건이 되는 그런 사회라는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생산의 특징은 그 과잉성에 있다. 일본에 대한 미국의 무역전쟁으로 침체하게 드러난 것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일본이라는 하나의 나라에서 생산한 상품만을 가지고도 전세계가 충분히 소비할 수 있을 만큼 세계는 과잉으로 태어난 상품들로 홍수를 이루고 있다. 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상품들을 소비하게 하기 위해 우리의 욕망을 산출하게 만드는 중요한 매체가 바로 광고이다.

현대사회에서 광고란 단순히 특정한 상품에 대한 정보전달의 의미를 갖지 않는다. 만일 광고의 목적을 제품의 정보전달에 두는 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의 광고는 실패할 확률이 높다. 광고의 목적은 새로운 욕망을 산출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욕망을 산출해내기 위해 광고는 "결핍관념"을 만들어 내야 한다. 트로픽 오렌지의 여인의 이미지가 트로픽 오렌지가 상징한 제품에 대한 결핍관념을 만들어 냈었던 것처럼, 이제 재즈와인의 여인의 이미지에 유혹된 인간은 그 이미지가 뒤로 감춘 상품에 대한 결핍관념이 생겨 그 상품을 욕망하게 되는 것이다. 개인의 개성연출(?)의 도구가 될 새로운 제품에 대한 욕망은 기존에 자기연출 도구로서 사용되었던 제품을 존스러워 보이게 만든다. 립스틱으로 말하면 더이상 트로픽 오렌지가 개성연출의 도구로서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 때 트로픽 오렌지가 재즈와인으로 대체되는 것은 당연하다. 여기에서 아직 반도 채 쓰지 않은 트로픽 오렌지는 "재즈와인의 유혹"으로 폐기, 쓰레기가 된다.

물론 재즈와인에 대한 결핍관념을 만들어내는데 매개가 되는 것은 광고였다. 광고는 "계절감각에 맞는 미"라는 미의 상대성을 내세워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다. 결핍관념을 만들어냄으로써 소비를 조장하는 광고는 갈수록 세련되어 무조건 그 기업의 물건을 선호하게 만드는 소비층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내게 이 물건이 정말 필요한가?'를 묻지 않고 이유없이 상품을 구입하는 소비자층을 만들어내는 광고가 탁월한 광고이다. 만일 자신의 실질적인 필요를 따져서 제품 설명서가 약속하는 것을 기반으로 상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라면 다음 순간, 그 이유로 해서 그 상표를 배반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광고가 지향하는 바의 논리는 논리의 측면에서는 종교와 흡사하다. '왜 신을 믿지?'라는 질문에 '인간이니까' 하는 대답 이외에는 필요가 없는 신자가 가장 철저한 신자인 것처럼 '왜 그 상품이지?' 하는 질문에 '신세대니까' 혹은 '미시족이니까'라는 말 이외의 말은 필요가 없는 자들이 현대



소비사회의 신자들이다. 특별하게 이름 붙여진 신세대, X세대, 미시족 등이 의미있는 이름인 것은 그 이름들이 바로 의미있는 소비집단을 창출해내기 위해 만들어진 이름들이기 때문이다.

현대사회에서 절대권력이나 영원한 스타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영원한 아름다움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영원한 아름다움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명제의 사실성 규명에 있지 않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 명제가 우리의 욕망을 산출해내는 광고의 출발점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아름다움을 그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규정하기 위한 상품판매의 중요한 전략이라는 것이다.

의미가 만들어지는 방식

정대현교수(본교 철학과)님의 말씀에 따르면, 한 단어의 의미는 그것이 지칭하는 특정한 대상의 본질적 속성 때문이 아니라 그 단어가 놓여져 있는 언어공간에서의 그물망에 의해 생겨난다. 지칭되는 대상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표현이 쓰여지는 언어공간의 그물망에 의해 특정한 표현의 의미가 정해진다고 말할 때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은 특정한 표현 그 자체라기 보다 그 표현과 다른 표현들 사이의 차이이다. 표현과 표현의 차이에서 의미가 만들어



지는 이 방식, 혹은 의미가 분화되는 방식을 데리다는 차연(Differance)이라 불렀다.

이와 같은 언어이론을 빌려 현대사회에서 미가 규정되는 방식을 분석한 사람이 바로 하우크이다. 그는 루카치의 범주를 패러디화한 보편, 개별, 특수 범주를 설정하며 특수범주를 미적 범주로 파악한다. 원래 칸트의 범주개념이 그런 것처럼 미적 범주도 '미 자체'가 아니라 '미에 대한 관념'과 관계한다. 물론 칸트의 물자체가 그런 것처럼 미 자체도 알려지지 않는다. 알려지는 것, 그럼으로써 의미있는 것은 사회적으로 규정된 미, 즉 미에 대한 현실적인 관념들 뿐이다. 여기에서 '아름다운 자체'란 개념은 쉽게 제기된다. 이것은 중요하다. 이것은 미의 상대성을 선택

할 수 있게 하며 그럼으로써 유행을 산출하는 근거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유행은 그것을 따르는 자에게는 "개성있는 자"라는 칭호를 붙여주고 그것을 따르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촌티"로서 응징한다. 미인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만들어지는 미인이 되는데 필요조건으로서 따라다니는 소도구들, 즉 상품들을 소비하도록 우리를 소비시장으로 내몬다. 여기에서 인간은 소비의 주체로 선포되지만 실상 그는 소비의 노예일 뿐이다.

예를 들어 화장은 처음에는 화장한 자의 얼굴을 아름답게 만들어 줌으로써 그에게 자신감과 당당함을 주는, 단지 그것을 쓰는 인간에 봉사하는 것 같지만 한번 그것을 사용하기 시



작하면 화장을 하지 않고는 타인 앞에 서지 못하도록 만든다. 화장은 그것을 하는 사람들을 화장품에 의존하게 만들어 그들이 화장품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화장품에 의해 선택되는 것이다. 그들이 "나는 허수아비가 아니다"라고 절규하는 것은 어떤 점에서 "나는 허수아비다"라는 절규보다 더 내용이 없다. 소비의 주체인 것처럼 보이는 이들은 사실상 소비의 객체일 뿐이기 때문이다.

나는 허수아비가 아니다?

사실 인간의 소위가 그 특징인 현대문화의 타락은 대부분 결핍에서 유래한다기 보다는

너무나 편리해진 생활조건들(상품들)에 기인한다. 상품들이 주는 생활의 편리함이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삶을 무력하게 만드는 측면이 더 강하다. 『상품 미학비판』에서의 하우크의 말을 빌려 보자. "처음에는 꼭 필요하지 않던 상품들은 필요하면서도 자질구레한 일들을 어렵게 되어서 불가피하게 그 상품을 구입하게 만든다. 그래서 이제 필수적인 것은, 그것 없이는 더 이상 생활할 수 없게 되어버린 불필요한 것과 구별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 이와 같은 상황은 워드프로세서를 쓰거나 승용차를 사용하는 경우

쉽게 이해된다. 볼펜으로 하던 작업과 동일한 작업을 하지만 워드프로세서가 없으면 글을 쓰지 못하게 된 사람들이나 승용차가 없을 경우 외출이나 여행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는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만난다.

우리가 이렇게 소비에 길들여지는 사이에 가장 강력하게 등장하는 것은 역시 "화폐물 신화"현상이다. 모든 인간관계가 소비를 매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를 할 수 없는 인간은 불종없는 인간, 매력없는 인간이 되는 것이다. 박한상 사건의 여파가 가시기도 전에 우리 사회를 또 한번 떠들석하게 하고 있는 지존파사건이 보여주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가난해서 인간대접을 받지 못했던 인간의 왜곡된 한풀이일 것이다. 사실 박한상 사건과 지존파 사건은 사회의 양극단에서 일어난 것이지만 결국 소비의 매개가 되어 돈이 지배하는 사회의 필연적 귀결이라는 점에서 크게 보면 동일한 사건으로 분류될 수 있는 사건들인지도 모른다. 이런 사회에서 인간은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는가? 과연 영혼 깊은데서부터 '나는 허수아비가 아니다'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배낭속의 자유를 담고

이 윤 지(독문과 91)

내가 유럽 여행을 꿈꾸기 시작했던 건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때 부터였다. 어느 날 수업 시간에 방학동안 프랑스를 다녀 오신 불어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길 유럽의 대학생들은 적은 돈으로도 방학이면 지도 한장을 들고 배낭을 맨 채 유럽 각국을 여행한다는 거였다. 밤기차로 이동하며 숙박비를 아끼고 바게트와 우유로 끼니를 때우며 이 도시 저 도시 살아있는 문화를 접하고 경험을 쌓는다고 했다. 아, 그럴수도 있구나. 해외여행 하면 으레 뽕족구두에 슈트케이스 들고 스카프를 필링이며 다니는 것인 줄로만 알았던 내게 그 당시 내게 그런 이야기는 신선한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그리고 그때부터 조심스레 마음을 먹었다. 대학에 들어가고 나면 나도 한번 시도해 봐야지 하고...

그 때 당시 마음을 먹었던 뒤로 지금까지 대학에 오고나서 벌써 세 번의 여행을 다녀온 셈이 되었다. 동남아시아, 호주, 그리고 유럽. 다른 친구들은 한 번도 엄두내기 조심스러워하는 배낭여행을 나는 무엇이 그토록 좋아 세 번씩이나 다녀왔었던 것일까. 그것도 혼자.

대학생활을 해나가면서 다양한 여러 경험을 해보았지만 그 중 하나를 손꼽으려면 나는 단연코 세 번의 여행경험을 들 것이다. 그만큼 여행의 경험은 나의 가치관에 많은 변화를 주고 나 자신을 알아가는데 도움을 주었기 때문이다. 나 자신을 낯선 곳에 던지는 것. 그것은 스스로에 대한 객관화였으며 다양한 상황속에 대처해 가는 나의 모습을 보며 자아를 발견할 수 있는 계기였다. 더우기 혼자 하는 여행이 주는 다양하고도 열린 만남들이란... 이는 혼자만 아니었다면 맛볼 수 없었던 소중한 경험

들이었다.

실제로 여행은 '만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아무리 유명하고 아름다운 관광지라도 그곳에서 만났던 사람들과의 만남이 불쾌하고 안 좋은 것이었다면 그 도시 전체에 대한 인상이 흐려지지만 아무리 보잘 것없는 시골의 구석진 마을이라도 그곳에서 만났던 사람들과의 파스했던 기억이 있다면 그 마을에 대한 인상은 아름답게 남는다. 뿐만 아니라 여행은 평범한 일상생활에서 만날 수 있는 정해진 범주안의 사람들이 아닌 정말로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이다. 내가 가장 겸손한 자세로 사람들에게 다가갔을 때, 그들은 나의 잊을 수 없는 친구요, 스승이 되어 주었다. 실제로 여행자란—특히 나같이 가난한 배낭여행자는—내세울 것이라곤 아무 것도 없는 자기 본연의 모습 그대로이므로 여행에서의 만남은 가식없고 서로의 진실한 면을 접할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그 만남을 알려면 함께 여행해 보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힘들고 고달픈 여정속에서는 서로 이기적이 되기 쉽기 때문에 그 사람의 바닥까지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다.

으레 혼자 여행을 다녀왔다고 하면 사람들은 놀라면서 무섭지 않았느냐, 위험하지 않았느냐 하고 물어 온다. 그러면 나는 사람사는 곳은 어디나 똑같은 데요, 뭐 하고 대답한다. 그렇다. 사람 사는 곳은 어디나 같다. 다만 생활양식이 조금씩 다르고 문화가 다를 뿐. 내가 여행을 통해 배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들의 다른 삶의 방식, 태도를 보고 나의 것을 되돌아보며 반성하고 앞으로의 지표를 설정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위험하기로 천다면 서



울만큼 위험한 도시가 또 있을까? 거대한 서울은 세계 3대 도시중 하나이며 우리는 이곳을 날마다 안심하고(?) 가로질러 다닌다. 우리가 서울에서 하듯이 여행지에서도 스스로 조심한다면 위험할 것은 없다. 가끔씩 들리는 여행지에서의 사고소식은 본인들의 부주의와 불찰에서 생겨난 것들이다. 멀쩡하게 여행하는 사람에게 와서 해고지할 사람도 없으니까. 이렇게 쓰다보니 내가 무슨 배낭여행 찬양론자가 되는 기분이다. 그러나 여행은 결코 신나고 기쁜 일만의 연속이 아니며,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인생의 모범답안지도 아니다. 여행은 우리 삶의 한 과정일 뿐이지 그 자체가 거대한 목표가 아닌 것이다. 잘 된 여행은 인생에서 한편의 시와도 같다. 하지만 잘못된 여행은 쓰내기 방랑이 되기 쉽다. 여행은 자기 자신과의 정면 대결이며 여기서 이긴다면 돌아와서 한걸음 성숙한 자신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반드시 해외 배낭여행을 다녀와야만 얻어진다는 것은 아니다. 이는 여행의 보편적인 이야기일 뿐, 굳이 유럽으로 호주로 동남아로 가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가면 좋다는 것이다. 물론 혼자 힘으로 우물안이 아닌 우물밖의 곳곳으로 다니면서 다른 문화를 접해보고 그들이 사는 모습을 보고 우리와 비교를 해가면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행. 이런 의미로서 배낭여행을 해보자는 얘기이다.

사실 요즘 소위 오렌지족이니 뭐니 하면서 배낭여행이 오디오-컴퓨터-자동차-해외여행으로 이어지는 무슨 사치성 상품이 된 듯한 느낌이 없지 않다. 실제로 몇몇 오렌지(?) 배낭족들 때문에 배

낭여행의 의미가 상실되기도 하고, 혹은 자랑스럽게 무용담을 늘어놓는 무전 배낭여행자들 때문에 배낭여행의 이미지가 흐려지기도 한다. 이런 두 가지의 몰상식한 여행패턴은 접어둔다손 치더라도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배낭 여행자들의 경직된 여행자세에 대해서이다. 해외에 나가서 보면 한국인 배낭족들은 대부분 한 눈에 한국인이라는 것을 알아 볼 수 있다. 청바지에 운동화, 모자, 벨트백과 목걸이 불펜, 그리고 00여행사 마크가 찍힌 알록달록한 배낭에 똑같은 여행 정보집으로 중무장(?)을 하고 눈물겹게 배고파도, 돈을 아껴 시계를 살지언정 철칙인양 바게트와 물만을 고집한다. 누군가가 어디가 좋다더라 하면 나도 질세라 우르르 몰려가며, 놀라우리만치 알뜰해서 다른 사람보다 돈을 한푼이라도 더 썼다 싶으면 몹시 불쾌해 한다.

배낭여행은 여행사들이 내놓는 규격화되어 정해진, 그리고 거기 그대로 맞춰야 하는 상품이 아니다. 배낭여행은 여행하는 한 방법일 따름이다. 반드시 배낭을 메고 가야만 하는가? 아니다. 핸드백이면 어떻고 트렁크면 어떤가? 다만 배낭이 편하기 때문에 배낭을 짊어지고 가는 것이다. 배낭여행자가 청바지 아닌 치마를 입고 다닌다고 해서 이상할 것 없다. 자기만 편하다면 미니스커트인들 어떤가. 먹는 것도 그렇다. 한달 내내 바게트만 먹다가 입이 험어 나중엔 빵만 봐도 눈물이 나더라는 여행자를 보았다. 이왕 여행을 하는 거라면 두 달 간신히 끼니를 때wig며 여행할 경비로 한 달간 깊이있게 여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값싼 레스토랑에 들어 가서라도 현지식을 맛보며 음식문화를 접

만화는 아름다운 詩

문 현 선(사학과 92)

잡지화

매월 1일과 15일이 가까워지면 어느새 학교 앞 서점으로 향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격주로 발행되는 만화잡지가 나오는 날이기 때문이다. 이날 서점은 유난히도 붐빈다. 나같은 사람들 덕분(?)이다.

너무 과장이 심하다고 할지도 모르지만, 이제 만화는 어느 서점에 가도 책장 선반 하나쯤은 차지하고 있다. 비단 서점에서의 위치만이 아니다. 요사이 신문이나 TV 광고, 드라마에서조차 만화의 영향력을 느낄 수 있다. 사람들은 비싼 요금을 마다하지 않고 '라이언 킹'을 보러 극장에 간다. 다섯 살 먹은 조카랑 '알라딘'을 보러 갔다고 해서 친구들의 비웃음을 사지도 않는다. 오히려 보지 못한 것이 부끄러울 지경이다. 10대들은 자신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부모님들에게 '슬램덩크'를 권한다고 한다. 정말이지 '만화 세상이 오고 있다'는 말을 실감하게 되는 현실이다. 만화가 더이상 대본소(만화가게) 한 구석에 틀어박혀

있는 천덕꾸러기가 아니게 되는 것. '애들이나 볼만한', '유치한', '심심풀이'가 아니게 되는 것이야말로 나와 같은 중중의 만화 애찬론자의 입장에서 보면 두 팔을 벌려 환영할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의 '만화판'이 그다지 만족스럽지 않다. 오히려 불안하다. 만화를 사랑하는 많은 이들이 그렇게 느끼듯이.

'잡지화'

이것이 현재 만화판에서의 주요한 현상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만화가 더 이상 '숨어서 보아야 하는' 일종의 경범죄가 아니게 하는 데에 큰 몫을 하였다. 만화잡지의 홍수시대로 할 정도로 언제, 어디서나 동전 몇 개만으로도 만화를 볼 수 있게 된 것이 사실이다. 장소의 제한, 시간의 제한, 그리고 작품(이렇게 말하는 것에 이해를 구한다)의 제한까지 받았던 시절에 비하면 분명히 신나는 일이지는 하다. 그러나 이처럼 만화가 양성화되고 양적으로 팽창했다고 해서 진정으로 만화를 보는 것이 '뽕뽕해졌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가장 아름다운 만화란

나는 '가장 아름다운 만화'는 가장 아름다운 시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시는 (포괄적으로 문학은) 그것이 시일 수 있으면 우리가 그냥 잊고 지나쳐 버리는 것. 무심해지는 것을 깨우쳐 줄 수 있어야 한다. 만화 역시 그렇다. 그리고 나는 실제로 몇몇의 그런 작품들을 알고 있다. '발바닥만한 이야기'를 읽고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는 사람, '악동이'를 읽고 코끝이 시큰해지지 않는 사람, '비천무'를 읽고도 슬픔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장길산'을 읽고 가슴이 뛰지 않는 사람은 어느 문학작품 앞에서든 감동받지 못할 거라고 나는 감히 말한다. 그 앞에서 나는 '만화'라는 말을 쓸 수가 없다. 그것은 '시'다.

만화잡지가 물밀듯 밀려 닥치면서 내가 가장 아쉬운 것은 새로운 '시'를 읽을 기회가 적어졌다는 점이다. (잡지사간의 과열된 경쟁은 발행기간을 계속 단축시켜서 발행인들은 월간보다는 격주간을, 격주간보다는 주간발행을 선호하게 된다. 덕분에 촉박한 마감시간을 지켜야 하는 만화가들은 생각이고이기도 전에 작품을 그려야 하고 그만큼 작품의 완성도가 떨어지게 된다. 그러나 결국엔 역량이 떨어져서 추석같은 명절



이라도 끼게 되면 주간은 다시 격주간으로, 격주간은 다시 월간으로 환원되는 우스운 현상이 벌어진다. (편집자 주) 이런 현상을 보고 나를 비롯한 만화광들은 '대작'을 구하기가 힘들어졌다고 말한다. 그리고 한 발 앞서서 이대로 가다가는 다시는 '시'를 읽을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닐까 걱정하기도 한다.

여기서 잠시 '만화 왕국'이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이웃의 일본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남녀노소, 시간, 장소를 불문하고 만화를 읽는 사람들의 나라, 모든 유명한 영화들을 제치고 만화영화가 흥행 1위를 기록하는 나라, 잡지 연재물이 단행본으로, TV용 만화로, 극장용 영화로, 팬시

용품으로 상품화되는 나라 일본. 일본의 만화문화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대본소(만화가계)가 아니라 잡지로부터 시작된다. 잡지에 실리는 만화는 팔려야만 한다. 이 새로운 '제한'은 만화가 더욱 재미있고 가볍고 잘 읽히도록 할 것, 급하게 변하는 독자의 '입맛'에 맞출 것을 요구한다. 그래서 일본 만

화는 재미있다. 그리고 가볍다. 철학적 깊이나 심각한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뒷전이고 그럴 여력도 없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요즈음 잡지에 실리는 만화들을 보면 이러한 의구심은 점점 더 짙어진다. 어디선가 언뜻 들었던 '어느 어느 만화잡지



가 일본의 무슨 출판사에 넘어 간다더라.' 하는 말은 뛰는 심장을 터억 내려앉게 하기에 충분했다. 지금도 대부분의 만화가 '흥미'만을 위해 달리는데 일본 만화까지... 참으로 아찔하지 않을 수 없다. (근래에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던 '드래곤 볼', '슬램덩크' 등이 비디오용으로 이미 시중에 유포된 사실로도

일본 만화산업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는데, 앞서 말한 사실이 현실화 되었을 때 우리 만화의 상업화는 가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대로 내가 사랑하는 만화가 문화식민의 척후병 노릇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벌써... 기실 안타깝게도 일본문화의 침투가 가장 심한 부분 중 하나는 바로 만화판이다. 이

미 1991년 3월 1일부터 일본 만화가 정식으로 심의되었고, 가까이서 외려 우리 만화보다도 더 많은 물량의 일본 만화가 서점에 자리잡고 있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와 같은 현실에 대한 자각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한 달에 몇 번씩 거

의 습관적으로 잡지를 넘겨 보면서, 대본소(만화가계)를 드나들면서 벌써 먼지가 풀색거리기 시작하는 '만화의 고전'들을 다시 펴면서 착잡한 심정을 어찌 해볼 수가 없는 건 이런 까닭이다.

재미와 흥미는 다르다

물론 만화는 재미가 있어야

한다. '재미없는 만화는 더 이상 만화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 말도 맞는 말이다. '재미'는 만화가 갖는 큰 장점이기도 하다. 그러나 여기서 '재미'와 '흥미'는 분명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책장을 넘기면서 킁킁거리지는 것만이 '재미'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잘 팔리는 상품이 되기 위해 그저 '흥미'만을 추구한다면 만화는 만화일 뿐이다. 서점의 서가가 온통 만화로 가득찬다고 해도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한 손에 만화를 들고 읽는 때가 와도 그런 만화는 '심심풀이 망풍'으로 그칠 뿐이다. 많이 읽혀진다고 해서 몇몇만 만화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잘 팔리는 문학이다 좋은 문학이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말이다.

"만화도 비평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당연하다. 모든 문화매체에는 비평이 따른다. 그리고 만화는 '그림 혹은 그림과 글의 혼용'으로 창작자의 주체적인 인식을 플랫폼으로 구성한다는 점에서, 또 우리 나라에서만 연간 1천 5백만권이상 발행되는 실재적 정보 매체이므로 당연히 평론의 대상이 된다 (손상익 「만화세상이 오고 있다」는 주장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당당한 하나의 매체이다. 이렇게 만

화가 문화매체로서 자리매김하는 데는 각자의 역량이 필수지만, 독자의 역량 또한 중요하다. 독자의 역량이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인식'의 문제이다. 아무리 만화가 '시'가 되어도 만화로밖에 보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도 없는 일이나. 그런 의미에서도 잡지는 하나의 장애이다. 서가 앞에 서서 어떤 만화를 읽을까 고민하여 선택하는 것은 위험부담이 크다. 하지만 '알아서' 유명작가만 이것도 옛날 이야기가 되어 버렸지만을 모아서 만든 잡지 한 권을 덜렁 사게/보게되면 그 잡지에 실린 '재미있는' 만화를 모두 읽을 수 있다. 이는 독자에게 만화 자체보다는 잡지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선택의 기회를 포기하게 만들기도 한다. 왕성한 식욕으로 모두를 먹여치우지만 채워지지 않는 가슴... 돌이켜도 돌이켜도 갈증만 심해지는 바닷물같다. 여기서 독자는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추구하게 되고 만화는 그 요구에 따라 '변신'을 거듭한다. 계속되는 악순환. 대량 생산과 더불어 그 안의 '시'가 소멸되어가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독자는 또 한번 단순소비자가 되고 만다. 모든 문화매체로부터 이제까지 소외당했던 것처럼 만화로부터도 소외당하게 되는

것이다.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이다.

만화는 대중매체로서의 파급효과를 떠나서도 인쇄매체와 영상매체가 갖는 매력을 한 몸 에 지니고 있는, 그 자체로 뛰어난 '문화매체'이다. 매체로서 만화의 장점은 풍부한 감정의 표현과 명징한 전달력에 있다. 그리고 그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 무엇을, 어떻게 그리느냐, 쓰느냐에 따라 만화는 '시'도 될 수 있고, 시간보내기용 '눈요기'가 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만화가 '무게'있는 '시'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지 않는다. 문학에도 여러가지 구분이 있고, 비중의 차가 있는 것처럼 만화 역시 그러한 구분과 차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단순히 그 안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통속소설이 있고, 순수소설이 있듯이, 만화에도 얕은 '재미'만 있는 만화와 '깊은 맛'을 가진 작품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후자와 같은 작품이 많아질 때 비로소 만화는 '멋진 문화매체'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쉽게 한 손에 쥐어볼 수 있는 잡지 한 권과 먼지 많은 '고전'의 책장을 들추면서 나는 이제 그만 새로운 '시'를 읽을 수 있었으면 하고 바란다.

소설은 다른 곳에 사유하는 존재의 아름다움

진 은 영(이대 철학과 대학원 석사과정)

1. 밀란 쿤데라의 에세이 '사유하는 존재의 아름다움'은 읽기 쉬운 책이 아니다. 그가 유럽의 쉰문화사를 아무데서나 끄집어내 사용하기 때문이다. 물론 서평을 쓰기에 적절할 책은 아니다. 밀란 쿤데라가 제시한 문학비평의 원칙 때문이다. 그는 한 작품의 독창성을 파악하여 이를 역사의 기억 속에 기록하고자 하는 것을 참된 비평이라고 말한다. 그가 보기에 문학비평은 어느 틈엔가, 서서히 하나의 단순한 (대개 지적인, 언제나 성급한) 문학 시사에 관한 정보로 탈바꿈해 버렸다. 이 짧은 서평이 물론 비평에 견줄 바는 못되지만 한 권의 책에 대한 소개가 단순히 책 내용에 대한 설명이 아니어야 한다는 자의식이 생겨버렸다. 그가 열어 보이고 있는 인간 존재의 새로운 가능성들을 어떻게 25매의 원고 속에서 표현해 낼 것인가하는 부담감이 이 책에 대한 서평을 서너 번 망설이게 했던 것이다.

2. 파뉘르쥬가 더 이상 웃기지 않는 날 : 대학원 논문 중간 발표가 있을때 시작전에 조교인 내가 간단한 음료를 준비하였다. 한참 발표자의 논문을 줄을 치가며 열심히 듣고 있는 중에 한 친구가 연습장에 메모를 적어 나에게 보냈다. 물이 다 떨어졌으니 지금 물을 끓이라는 내용이었다.

열심히 발표를 듣고 싶은 건 마찬가지인데 마시고 싶은 본인이 끓일 것이지 메모를 다른 친구들에게 건너 건너 나에게 보낸 발상에 화가 났다. 그 메모를 받아 든 순간부터 나는 친구를 비난하면서

갖은 악덕의 꼬리를 붙이기 시작했다. 발표회가 끝나고 분개하면서 다른 친구에게 그 사실을 폭로(?)하였다. "젠장! 그 애가 나에게 물을 끓이라고 했던 말이야!"

쿤데라

는 한 사람이 도덕적 판단으로 소설을 파악할 때 그는 결코 소설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가 보기에 예술은 도덕적 판단이 중지된 땅이다.

그러자 그 친구가 빙그레 웃더니 말했다. "어디서 닭 잠을 일 있냐? 라고 써주지 그랬어" 그 순간 모든 게 모호해지기 시작했다. 나는 껄껄대고 웃다가 내가 그녀에게 붙인 악덕의 꼬리표를 분실해 버렸다. 독특한 어떤 희극성으로 인해 유머는 자신이 건드리는 모든 것을 모호하게 만들어 버린다. 쿤데라는 한 사람이 도덕적 판단으로 소설을 파악할 때 그는 결코 소설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가 보기에 예술은 도덕적 판단이 중지된 땅이다. '도덕적 판단을 중지한다는 것, 그것은 소설의 부도덕이 아니라, 바로 그의 도덕이다.' 그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소설은 모든 책임 소재로부터 자유로운 도덕적 자유방임의 영역에 있다는 것이 아니다. 그가 표현한 것이 그렇게 이해될 때 쿤데라는 예술지상주의자가 되어버리고 가벼운 포스트모더니스트가 되어버리기 시작한다. 그러나 도덕적 판단이 중지되는 땅은 소설의 영역으로서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소설이 지켜내야 할 땅이다. 도덕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에는 '즉각적으로 그리고 끊임없이 모든 사람을 판단하는, 이해하기 전에 이해함이 없이 판단하는 뿌리 뽑을 수 없는 인간행위' 이기 때문이다. 도덕적으로만 판단하는 사람에게 세계나 인간, 사물들은 단지 두 가지 뿐이다. 그것은 악한 것이나 선한 것이며 그 둘 중의 하나가 아니라면 사물은 아무것도 아니다. 거대한 도덕적 기준이 나타나면 사물의 다른 면, 그토록 신비하고 기묘한 구조적 몸짓들은 사라져버린다. 그가 주장하는 소설의 도덕이란 도덕적 판단에 가리워져 막혀버리는 개방성의 입구를 찾아내자는 것이다. 맹렬한 도덕적 판단을 거절할 수 있는 자유가 소설의 자유이며 그 자유 속에서만 모든 인간은 자신의 고유한 도덕을 지닌 자율적인 존재로서 피어날 수 있다. 그는 예정된 진리에 따라 구상된 개별자가 아니라 참다운 개인이다. 개인이란 무엇인가? 어디에 그의 정체가 있는가? 이 질문을 쿤데라는 '자아는 무엇으로 정의되는가'라는 물음을 다시 묻는다. 그의 행위인가? 행위는 행위자를 벗어나며 그를 배반한다. 비인간적인 힘, 초대되지도 열망되지도 않았으면서, 외부로부터 침입해 들어와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힘들 속에서 개인에게 남아 있는 가능성을 찾아내는 일이 소설의 업무이다. 소설은 도덕적 판단을 중지시키는



소설은

감정적인 것, 극적인 것에 있지 않다. 또한 소설은 도덕적 판단들 사이에 있지 않다. 소설은 다른 곳에 존재한다.

소설은 감정과 도덕성의 환상을 넘어서 명철한 시선을

지닌 자들의 거주지, 또다른 욕망이다.

3. 성 가르타의 거세적 그림자 :

오손 웰즈의 '심판'과 소더버그의

'카프카', '카프카의 연인 밀레나', 이 세편의 영화는 내가 카프카

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그를 이해하기 위하여 본 영화들이다.

그러나 이 영화들은 공통적으로 카프카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으나

그를 가장 오해한 막스 브로드의 견해를 바탕으로 그려져 있다.

영화 뿐 아니라 카프카에 대한 대부분의 이미지가 성불능에다 병약

했던 창백한 지성으로 그려진다.

물론 이러한 묘사는 대부분 예찬의 형태를 띤다. 그는 금욕적 성자

가 되거나 투사가 되고 그의 작품은 기독교적으로 해석되거나 고발

문학이 되어버린다. 문학을 이해하는 가장 나쁜 방식은 전기적으로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다. 카프카가 실제 어떠했는가에 관심을 갖는

순간 카프카의 문학은 사라져 버린다.

내가 카프카를 이해하려 했던 방식은 그가 가장 원하지

않았던 그에게 가장 불명예스러웠던 방식이다.

영터리 시인 친구 막스 브로드에 의해 덮혀진 거세적 그림자를 걷

어낼 때 카프카의 문학은 더 이상 금욕적이지 않다.

'아메리카'에서는 주인공과 하녀와의 성교장면이 묘사된다. 그 초

라한 성교행위는 다음에 주인공에게 일어날 모든 일들의 원인이다.

성교는 자극적이거나 흥분되지 않는다. 성이 낭만적이지 않은 것은

브로드가 말하듯 '바른 길을 따르지 않은 자들에게 마련된 끔찍한

형벌'에 대한 묘사가 아니다. 그것은 성교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교미 뒤엔 모든 동물이 슬프다. 성행위가 끝난 후 가장

낮선 이는 바로 그 상대방이다. 낭만주의 연애소설에서 표현되지

않았지만 가장 진지하게 생각되었던 것, 낭만적인 방식으로만 묘사

되었던 것-性愛的인 것-을 그는 아주 낮설게 표현한다.

진정한 것이 언제나 진실에 가까운 것은 아니다.

성교뿐만이 아니라 죽음조차도 실제로는 영화에서처럼 극적이지 않

다. 죽음의 순간, 비장한 레퀴엠이 울리지 않는다.

누구의 죽음이든 그것은 담담하고 초라하기까지하다. 단지 극성스

러운 애도의 관습이 죽음을 도저한 슬픔으로 치장하는 것이다.

영혼이 진정으로 슬플 때 영혼의 울음은 자연의 無感에 의해서만 위로받을 수 있다. 낭만적 거짓은 아무 것도 위로할 수 없다.

비애의 최극성은 슬픔이나 기쁨 그리고 상상력조차 관습적인 세계에 대한 통찰이다. 감정적 제스처의 남발,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의 폭발은 어느 순간 기이할 만치 감정들이 부재하는 순간으로 이어진다. 카프카는 감정적인 몸짓과 극적 과장의 순간 뒤에 감추어진 심장의 매마름을 추적한다. 광적인 흥분을 부추기는 상징으로 가득한 문화사업의 역사는 유구하다. 우리들의 시대에 그것은 더욱 기승을 부린다. 쿤데라가 어디선가 말했듯 성숙성의 기준은 상징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러나 인류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4. 소설은 다른 곳에 : 열여덟 살에 나는 장 그르니에의 섬을 좋아했다. "혼자서, 아무 것도 가진 것 없이, 낯설은 도시에 도착하는 공상을 나는 몇 번씩이나 해보았다. 그리하여 나는 겹겹하게, 아니 남루하게 살아보았으면 싶었다. 무엇보다 그렇게 되면 <비밀>을 간직할 수 있을 것이다." 케르케렌 群島에 나오는 이 짧은 구절을 가끔 암송하곤 했다. 물론 열여덟 살에 나는 남몰래 간직할 비밀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구절을 암송할 때마다 비밀이라는 단어가 주는 아주 신비한 존재감에 도취되곤 했다.

요새도 가끔 이 글을 중얼거리려 본다. 그때마다 나는 그르니에가 방해받지 않는 삶을 얼마나 열망하였는지를 생각한다. 삶은 갈수록 통제받고 비밀이 사라져간다. 공공생활과 사생활이 매 한가지인 삶은 공포스러운 삶이다. 그것은 수다스러운 대중의 발설에 노출된 삶, 행정기구에 의해 기획된 삶, 경찰에 의해 전적으로 통제되는 삶이다. 카프카의 강박관념은 외로움이라는 저주가 아니라 '강탈당한 외로움'이라는 것이다. 내적 생활은 끊임없이 침해되고 무너진다. 개체화되지만 그때 개체성이란 모두 복제화처럼 동일하고 상투적이다. 젊은 아이들의 개성이나 유행감각이란 광고화면만 벗어나면 얼마나 판에 박은 듯 획일적이고 덧없는 것인가. 획일적이고 판에 박힌 것이 어디 젊은 애들의 유행감각 뿐이라. 소설이 가장 많이 읽히고 대량 생산되는 시대에 소설은 점점 더 빈곤해진다.



쿤데라는 오늘날의 대다수 소설 생산이 소설사의 장외에 있는 소설들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한다. 소설들은 온통 드라마틱한 연애와 모험으로 가득차 있다. 그러나 소설은 이미 플로베르에서 진실한 현재 순간의 구조를 발견했다. 우리 삶의 토대가 되는, 진부한 것과 극적인 것의 항구적인 공존이 바로 현재이다. 극적인 것이 진부해지는 순간 카프카의 희극성이 발생한다. 소설이 진정으로 소설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미학적 공간, 실존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야 한다.

쿤데라는 이 책에서 스트라빈스키, 잔느캥, 아나체크 등 몇명의 음악가를 소개하고 있다. 그들의 음악적 위대함은 그가 소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음악들이 존재의 새 지평을 열었기 때문이다. 스트라빈스키의 작품 안에서 유럽음악은 자신의 천 년 과거를 추억할 수 있었다. 잔느캥이 위대한 이유는 그가 음악의 존재론적 문제를 건드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음악 속에서 비음악적인 음들을 도입함으로써 음악적 음과 소음의 관계를 건드리다. 카프카와 더불어 또 하나의 위대한 체코인 아나체크는 거리를 산책하면서 말소리를 악보로 적었다. 음악이 더 확실한 실재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는 확고하게 존재했으나 음악적 음들로부터 소외되었던 음향의 세계를 들여와 음악의 존재론적 지평을 넓히고자 했다.

소설은 인간이 될 수 있는 모든 것,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드러내 보이는 작업이다. 인간 삶의 여정은 구불구불한 길이다. 그 연속되는 단계들은 종종 다름 뿐 아니라, 종종 앞선 단계들을 완전히 부정하는 그런 여행. 그것은 한마디로 정의되지 않는다. 소설은 이러한 도정을 구체적으로 탐색하는 작업이다. 삶의 여정의 어떤 단계가 다른 어떤 단계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지 않기에 소설은 탐색을 위해서 도덕적 판단을 중지해야만 하는 것이다.

소설은 감정적인 것, 극적인 것에 있지 않다. 또한 소설은 도덕적 판단들 사이에 있지도 않다. 소설은 다른 곳에 존재한다. 소설은 감정과 도덕성의 환상을 넘어서는 명철한 시선을 지닌 자들의 거주지, 또다른 혹성이다.

5. 소설적 반성을 위하여 : 도서관에서 사유하는 존재의 아름다움을 읽고, 써야 할 서평을 궁리하다가 저녁을 먹으러 갔다. 박물관 앞에서 이화 가을 문화제가 열리고 있었다. 나는 그것이 방송국의 쇼프로 녹화장면인 줄로만 생각했다가 포스터를 보고 가까스로 문화제임을 알게 되었다. 초대된 다른학교 그룹사운드가 한 일본 그룹의 노래를 한국말로 개사하여 부르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고 시대적 감수성도 자주 쉽게 변한다.

쿤데라의 말처럼 나는 우리가 대학을 다닐때 지냈던 감수성이 지금 이들의 감수성보다 더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말할 수 없음을 안다. 그 문화제가 나는 이해할 수 없는 '새로운 운동의 방식'이라는 것일까? 쿤데라는 이 글에서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견해 수정에 대해 언급한다. 내면세계가 바뀔 때 한 개별자는 변화한다. 그러나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견해를 수정하는 것은 자아의 본질에 접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과 융합되기 위해서이다. 그것은 변화하는 역사의 정신에 매우 통속적으로 부합하는 것일 뿐이라고 그는 말한다. 내가 대학을 졸업하던 해부터 '새로운 운동의 방식'은 졸업 대학 내의 모토였다. 이제 그토록 자주 외쳐지던 '새로운 운동의 방식'이 변화하는 역사의 정신에 매우 통속적으로 부합하는 것이 아닌가 염려스럽다. 운동이 저항운동인 시대에 혁명적 감수성에 맞지 않는 노래는 언제나 거부되었다. 저항문화로 형성될 수 없는 것은 무가치하게 여겨진 것도 사실이다. 나는 모든 운동이 저항운동일때만 의미를 갖는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항의 감수성으로 그 음악회를 재단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모든 운동은 지향점을 가지며 그에 따라 자신만의 문화를 창조해간다. 나는 그 일본그룹의 일본노래가 우리 이화의 새로운 문화공동체의 창조를 위해서 어떻게 한몫 할 것인지 후배들에게 묻고 싶다. '새로운 운동의 방식'이라는 추상적 모토 아래서 많은 것들이 자꾸 책임소재를 잃어가고 있다. 단지 그 노래가 유행이어서, 학우들이 좋아하니까 이런 것들이 그 이유였다면... 고생한 사람들 힘써지지 않게 충고하는 방법을 몰라서 마음이 언짢아진다.



충격94, 아름다운 사건 하나

—한 선배의 평가에 부쳐

26대 총학생회 기획국

26대 총학생회가 의욕적으로 기획했던 문화제가 9월30일 야외영화제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예년의 경우를 더듬어 보면, 2학기에는 단대제나 과행사가 많은 시기이고, 총학생회는 주로 상반기에 대한 정리작업과 한두 번의 기획행사를 끝으로 마감하곤 했었다. 특히 2학기는 학사일정이 매우 빡빡하기 때문에, 행사가 대부분 9월말에 몰려있는 터라, 총학생회에서 그 시기에 사업을 벌이는 것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이화인도 많았으리라. 그런데도 총학생회는 그 말많은 시기(?)에 문화제를 기획했고, 야외영화제를 통해 연인원 7~800여명의 이화인들과 문화제의 자리를 함께 했었다.

사실 이렇게 평가라는 이름의 글을 쓰게 된 데에는 한 선배님의 문제제기가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는데, 약간 길기는 하지만 선배님의 글을 인용(부분인용)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한다.

‘... 박물관 앞에서 이화 가을 문화제가 열리고 있었다. 초대된 다른 학교 그룹사운드가 한 일본 그룹의 노래를 한글로 개사하여 부르고 있었다. 내가 대학을 졸업하던 해부터 ‘새로운 운동방식’은 졸업 대학 내의 모토였다. 이제 그토록 자주 외쳐지던 ‘새로운 운동방식’이 변화하는 역사의 정신에 매우 통속적으로 부합하는 것이 아닌가 염려스럽다. 나는 그 일본그룹의 노래가 우리 이화의 새로운 문화 공동체의 창조를 위해서 어떻게 한문 할 것인지 후배들에게 묻고 싶다. ‘새로운 운동의 방식’이라는 추상적 모토 아래서 많은 것들이 자꾸 책임 소재를 잃어가고 있다.’

—「이화의 활발」 10월호, 진은영 선배의 서평 중에서

선배의 글을 읽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고민이 단지 문화제 행사중 하나였던 음악제 한 프로그램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로 풀릴 수 없으며 제 26대 총학생회 활동의 기초가 되는 문제의식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필요로 하고 있음을 느끼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은 많은 부담감을 안고 쓸 수밖에 없음을 이화인들은 이해해 주길 바란다.)

총학생회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90년대에 대학생활을 시작한 이들이다. 우리는 대학에 들어와서 학생회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새로운’이라는 말이 낡고 지겨워질 때까지 듣고 이야기 해 왔다. 그러나 그렇게 고민하는 과정에서 몇 번을 제외하고는 ‘아, 이것이 새로운 운동방식이다.’라는 쾌감(!)을 맛보지 못했다. 그렇다고 해서 매너리즘에 빠졌다는 것은 아니다. 오

히려 ‘새로운’이라는 말을 필요로 했던 시기가 지나 어느 정도 이화인들의 정서나 학생회 활동이 나름대로의 자기체도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 옳은 표현일 것이다.

자율성 그리고 자치적 행동

문화제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잡고 싶었던 화두 하나는 ‘자율성...’

그리고 자치적 행동’이라는 부분이었다. (사실 지겹지만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어떤 공간에서도 그 집단의 일원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 선택의 강제성. 그 억압의 구조를 깨뜨리려는 욕구로부터 우리의 문화제는 출발했었다. 개인의 자율성과 개성이 자유롭게 드러나고 표출되며 그렇게 드러난 것들이 교류되면서 구성되는 또 하나의 작은 사회로서 대학이라는 공간을 꿈꾸면서.

그렇기 때문에 음악제는 소위 ‘기조’라는 것이 없이 준비된 행사였고, 출연동아리 역시 자의적인 잣대로서가 아니라 순수한 대학내의 동아리라면 누구에게나 그 문을 열어놓았다. 정말로 총학생회가 그런 무모한 짓(?)을...? 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했던 것은 두 가지였다.

아마추어리즘(?)

하나는 동아리-동아리라는 공간은 개인의 능동성이 가장 드러나는 자치적 행동의 대표적인 공간이라는 집단의 자기표현의 자리를 마련해 보자는 것이었고, 하나는 우리가 향유하는 문화적 다양성을 여과없이 드러내 보자는 것이었다. (그래서 선곡의 과정에서도 거의 개입하지 않았다.) 말 그대로 ‘네 꿈을 펼쳐라’였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구상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막히는 점들이 많았고, 그 괴로움과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안고 막을 올린 음악제에서, 앞의 선배가 글에서 쓴 상황이 실제로 일어난 것이다. 기획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의도했던 판은 창작곡을 앞세운 땀방울 음악 동아리들의 축제였고, 그것이 이리저리한 상황을 거치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었다고 변명 아닌 변명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뼈아픈 사실하나—이것이 바로 우리 대학의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왜 일본 노래를...’ 류의 구체적 비판에 대한 대답이 아님을 이 글을 읽은 이화인들은 알 것이다. 생산 없는 소비를 지양하고자 하는 우리의 유토피아가 아직 멀리 있음을 솔직하게 인정하자는 것이다.

오히려 우리는 다른 부분에 주목하고자 한다. 성공이건 실패이건간에 이번 음악제에서 대학문화를 일구어갈 소중한 우리의 동아리들이 자신을 표현할 공간을 가졌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뜻하지 않은(?) 기회가 자기 집단이 지닌 커다란 책임감과 가능성을 자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점 등이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화의 동아리들이 많이 출연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새로운 운동방식’은 총체적인 틀로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이화라는 공간에서 개개인의 다양한 욕구의 표현으로부터 우리의 저항을, 우리의 반항을 만들어 가야 할 때가 아닐까?

공통이 되고 싶다



송 경 오(26대 부총학생회장)

이번 달로 총학생회를 운영한지 거의 10개월이 넘고 있다.

이미 과거가 되어버린 지난 10개월의 시간들을 다시 불러보고 싶다. 그리곤 그 때의 활동 하나하나를 반추해보는 것이다. 머리속을 뱅도는 오만가지 생각들, 아직까지도 별려놓은 기획사업들을 차근차근 정리하고 나면 남은 2개월이 금새 지나가 버릴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통수 굵어가며 애써 스스로의 활동을 '평가'라

는 잣대위에 올려놓으려 하는 것은 남은 기간동안 풍요로움을 플러스시키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내년, 내후년 이화 학생회를 책임지게 될 후배들에게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말할 수 있을 만한 그 무언가와 크고 작은 시행착오의 과정들, 그리고 소박한 초기 문제의식이라도 남겨놓고 싶은 열망때문이다. (보다 객관적일 수 있고 정확한 94년 총학생회 평가는 함께 살아왔던 만오천 이화인들의 언어로 듣는게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점연적게도 노선님의 저서에 수록되어 있는 몇 구절을 인용하고 싶다. 바로 내 뒤에 남겨지는 후배들에게 오늘 절실히 바라는 것이기에.

만일 젊은 후진들이 정말 사다다리를 밟고 더 높이 오를 수만 있다면 우리들이야 밝히려운들 원한이 있겠습니까. 소인은 어쩔 수 없이 젊은이들을 위해 사다다리가 될 각오를 하였

으나 그들이 사다다리를 밟고 오를 것 같지 않습니다. 슬픈 일입니다!

이화는 오늘도 안녕하다?

얼핏 무슨 뜻일까 궁금해진다. 이화는 항상 안녕하다는 것일까.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좋은 상태가 유지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 아니면, 위태위태한 이화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인가. 언제 무너질지 아무도 장담 못하고 어느 때가 되면 정말 부활할 희망조차 사라져 버릴 지도 모른다는 말 같기도 한데, 유치한 말장난인 것 같기도 하겠지만 웬지 이 열개 남짓한 글자로 구성된 문장은 의미심장한 냄새를 풍기고 있다. 지금 이화에 대해 아주 냉혹하게.

이화는 108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내왔다. 시대를 항상 앞서서 살았던 자랑스런 선배들의 전통이 아직 남아 있다. 그리고 불합리한 체제에 대한 순응보다는 반항의 기질이 어울리는 정서를 지니고 있는 곳이 바로 이화라고 했다. 하지만 90년대를 풍미하고 있는 이화의 분위기는 느끼는 사람에게 당혹, 그 자체로 다가온다. 과거에 대한 망각과 대안없는 해체, 사회 요구에 부응하며 이미 예정된 길에 자신을 끼워 맞추려는 노력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상실감들. 이런 단지 이화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었다. 대학마다 모두 일어나고 있는 보편적 현상에 몇 가지 특수한 경우가 있을 뿐이다. 어쨌거나 지금의 현상들은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 학생회가 다수의 학생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너무 적었다. 아니 오히려 자신조차 추스리지 못하고 있었다. 학생회 자기 자

리 찾기와 새로운 변신을 시도하지 않는다면 존재조차 위협받기 쉽상이었다. 이전 학생운동권의 아니, 학생회의 배경이라 할 수도 있었던 사회주의권이 기하급수적으로 몰락했다. 그와 동시에 탐시즘의 위기가 무너지는 레닌의 동상처럼 현실로 다가왔고 온갖 포스트 증후군이 유행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러나 사회주의의 붕괴가 자본주의의 승리를 얘기하지 않듯이 여전히 사람들은 진리에 대한 갈증을 느낀다. 명확함이나 확실성이 사라지고 '불확실성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89학번이 새내기였을 때까지만 해도 당연시되었던 이념적 지표는 상실되었고, 학생들은 커녕 운동권 자신조차 고개를 가우뚱거리게 되는 한국 사회의 근본변혁의 상과 모델. 또 어떤 성격이 되었든 간에 민주주의라는 것이 이 땅에서 어느정도 보장받을 수 있게 되고, 아직은 한계가 있긴 하지만 정치적 다원주의가 인정받을 수 있을만한 사회적인 분위기의 형성, 학생회를 새롭게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까라는 질문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다. 학생운동(학생회)은 현실에 적응해야 하는 위기를 극복할 카드를 만들어야만 했다. 전까지만 해도 하나의 정치적 색깔로 학생회가 학생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아주 다양하고 심지어 이색적인 자기 견해와 정서를 지니고 자신들을 포괄하고 있는 학생회에서 발피를 시도하고 있다. 딱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집단발산이 되기는 어려운 법한데도 말이다.

학생회에 대한 재인식이 이루어졌다.

26대 총학생회는 이제 실험의 단계를 뛰어넘기 위한 또하나의 실험을 시도하려 한다. 우리는 결코 그것을 완성된 단계의 어떤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 지금까지의 실험이 얼마나 미진한지를 알고 있고, 또한 서술한 변화와 또다른 새롭게 변화된 상황은 우리에게 단순히 '변화해야 한다.'라는 당위를 뛰어넘는 실천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94년 총학생회 총노선 중에서

24대를 시작으로 25, 26대로 이어지는 이화 학생회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진행되어졌고 지금도 역사를 장식하고 있다. 24대 총학생회는 무척이나 신선했다. '진보와 지성', 변화하는 현실 속에서 대학과 대학인, 그리고 학생회에 대한 새로운 위상정립의 첫 태임을 닦았다. 25대는 '이화'라는 구체적 현실에 착목한 것이 특징이었다. 이런 인식과 활동의 역사 아래 26대가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었는가?

이화 안에는 몇 개의 실천조직(정치조직들과 성실련, 아카데미한 성격의 지닌 활동모임들 등)과 학회, 소모임들이 있다. 이들은 학생회와 독립적이면서도 유기적 관련성을 지녀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래의 사고방식에서 자유롭지 못하면서 자기 중심의 기회마저 잃어 버리고 있었다. 학생들의 이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스스로 움직임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 마치 학생회에서만이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학원의 개혁이니, 학생들과의 접촉지역을 찾아야 한다는니 라는 말은 너무도 잘하면서 정작 기본적인 활동이라도 능동적으로 하는 단체나 모임은 별로 없다.

그들은 머리만 비대해졌을 뿐(어쩌면 현실과 동떨어진 문건에 대해 역면 그대로를 받아들이려 하는 것 같아 딱히 수긍할 수 있는 말도 아닌 듯하다.) 다리는 땀 곳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그렇다고 학생회가 허약한 토양을 바꿀만한 그 무엇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또한 이화의 현실이었다. 학내 자치활동의 중요한 기구로 인정받고 있고 역사성도 지니고 있긴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경험하듯이 선거라는 직접적인 참여구조를 제외하고는 학생들의 능동성을 고양시키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안정된 활동공간으로서의 보장은 틀로서만 간신히 존재할 뿐, 과학생회의 경우 학생회장을 선출하고 집행부를 꾸리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지금 학생회 상황인 것을.

آمد했다. 일년 내내 블루라는 색채를 그대로 안고 살아가야만 할 듯했다. 보이지 않는 '3세대 이화인의 가능성' (사실 자신들이 직접 만들지 않으면 표출도 되지 않는 두리뭇실한 자부심과 희망이긴 하지만)에 대한 신뢰로 총학생회 일년을 각오했다.

무너지는 학회, 대안없는 대학문화.

이러한 지금의 현실에서는 스스로 비판할 수 있고 자신의 올바른 선택으로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이화인이, 그야말로 수퍼우먼으로 자라날 수 있을 만한 토대를 제공하는 역할만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내용없는 공동체라는 틀거리가 오히려 개개인의 창조성을 격감시키고 있는 현실을 과감히 탈피하고자 26대는 시도했다.

혹, 생활도서관, 씨네마 페고에 가보았는가. 그리고 5월 대동제 행사를 기억하는가. 총학생회 월간지 「이화의 활발」의 발간사와 함께, 만약 그것도 힘들다면 얼마 전에 시작한 가을 문화제는 어떠했는지 이야기 할 수 있을까.

100여명의 회원으로 운영되는 씨네마 페고와 생활도서관, 소비와 분출만이 아닌 생산지향적이 될 수 있는 담론을 던져주기 위해 발간되는 총학생회 기관지 「이화의 활발」, 새로움에 대한 거부감 많은 이화에 선택이 선을 불러 일으킬만한 다양한 기획행사들, 이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개인적인 불만이나 재갈거림이 학내에 혹은 사회에 대한 여론으로 형성된다면 무장봉기를 꿈꾸는 혁명보다 훨씬 실질적인 현실변화의 힘이 되지 않을까 싶었다.

장사가 잘 될 수 있을 만한 상품들을 시장에 내놓는다는 식으로 이해하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의 의도는 단순히 학생회의 기획행사에 좀더 많은 이화인들을 모이게 하기 위한 형식의 고민이 출발점은 아니었다. 함께 해야만 한다는 공동체 형성이 당위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했다. 즐거움과 만족감, 그리고 창조자로서 이화인이 되기 위한 다수 참여의 프로그램을 고민했던 것이다.

잃어버렸던 이화의 기질을 되찾고 소멸해 가는 대학내의 자치활동을 회복시키는 것, 그것은 학생회 간부들의 결의나 혁신만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화내 개개인의 자생력을 키우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행했던 다양한 활동을 우리는 '실험'이라 불렀던 것이다. 이화인의 생활에 가장 밀접하게,

신선한 충격과 함께, 그렇게 출발하였다. 썰렁하고 메마른 이화의 땅에 스스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의도였고, 이를 위한 노력은 단순한 열망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당위였고 마지막 이화의 생명줄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며 지난 한 학기를 보냈다. 이는 낭만적인 대학인의 발랄함을 위한 것이 아니다. 바로 '역사와 사회에 열려있는 대학'이라는 대학의 應의 미래상의 구현을 위한 진지한 시도를 의미했다.

단한 구조를 지닌 체제의 유혹은 대학 깊숙히 들어왔다. 더이상 우리가 창조자가 되는 것을 거부한다. 이제 창조자의 웃음과 환희를 거두어가고 있는 이 대학을 새롭게 일궈야 한다. 바로 현실을 뒤엎을 만한 힘을 지닌 주체의 형성을 시작으로...

포부는 창대했다. 그러나...

이런 우리의 꿈도 10개월의 시간을 돌아보면 무척이나 많은 고충을 가지고 있었다.

풍부한 가능성이 존재할 것이라는 믿음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던 출발이었다.(물론 지금도 이 부분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도록 여러 실험의 장에서 보여지는 것은 이화인의 일시적인 반응외에 뚜렷한 변화나 비전을 보지 못했다. 아직은 영화를 한 편 본다는 식으로 이해되는 씨네마 페고, 중앙도서관보다 책을 얻기 쉽다는 이유로 이용되는 생활도서관, 이렇게 비취지는 모습은 기대감이라는 짜릿한 흥분을 느끼며 애써 만들었던 우리를 낙담하게 만들었다. 21세기 이화 발전 계획에 설득력있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만들어 보자던 의

지와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불합리한 학사 행정 개선에 대한 노력도 합리성의 잣대와 과학적인 논리를 들고 나선 학교 당국 앞에서는 일천한 학생체 태이불의 협상 기술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큰 어려움은 이화인을 다양한 실험을 통해 현실변화의 주체로 형성시키고자 했던 우리의 의도를 다수의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이다. 이화운동세력에서는 '학생회 강화를 고민하지 않는다'라든가, '현실과 타협하려는 나약한 모습을 지녔다'라든가 하는 식으로 정당한 행위에 대해 거부감부터 표출했다. 그리고 많은 이화인들은 '활발하다', '재미있는 행사를 많이 하는군' 정도도만 이해한다는 점이었다. 그 때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것에 혀를 찰까, 허탈감과 약간의 패배감뿐이라는 생각이 들곤 했다.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이화에 대한 우리의 진단은 정확한 것이라 생각해 왔는데 무엇이 잘못되었던 것일까. 다시 생각해 보았다. 바위를 옮기는 시지프스의 교훈을 그 새 잊어야 할 만큼 우리에게 여유가 없었던 것일까.

이런 고민이 정리되기 전에 방기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던 학생회의 정치활동 수행의 요구가 외부로부터 밀려 들어왔다. 사회적인 상황이 또 한 우리에게 비협조적이었던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평온했던 지난 문민정부 1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94년은 광란(?)의 시기였다. 아직 94년을 가리키는 달력의 숫자가 남아있긴 하지만 말이다. 채 예견되지도 않았던 특수한 분위기가 이화의 자생력을 키우고자 했던 26대 총학생회의

역할에 제동을 걸었던 것이다. 연초부터 농민들의 생존권 싸움인 우루과이 라운드 국회비준 저지투쟁, 뒤잇는 민주노총 건설과 94 임금 가이드라인 사회적 합의 분쇄를 위한 투쟁들, 그리고 고기가 물을 만난 듯이 날뛰던 신공안정국의 칼바람에 '이화의 활발'은 대응해야만 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첫 결실을 맺지도 못했던 이화의 토양만들기의 작업들을 뒤로 한채 바빠 이거리 저거리로 뛰어다녀야만 했다. 결국은 우리의 집중점이 중심이동을 시작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뿌리내리기에는 아직 이른 우리의 실험 사업들, 더 많은 경험과 눈에 드러나는 시행착오만이 보이지 않는 이화 자치활동의 토양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지속시킬 수 있는 시간적, 정신적, 하다못해 신체적인 여유가 없었다고 한다면 핑계가 될 수 있을까. 이 시대는 자신 있게 한 곳에 포커스를 맞추는 일이 집중력과 끈기를 쫓는다고 보다 미성숙의 판단력을 갖기 때문이라는 변명을 늘어놓는다 해도?

방금 막 야외영화제를 보고 왔다.

제법 쌀쌀한 날씨인데도 이화광장에 많은 이화인들이 웅기종기 모여 스크린을 둘러쳐라 쳐다보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노라니 이상한 감흥이 스며든다. 이번 주에는 단대제가 있어 선지 여기저기 후배들의 분주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온다. 단대 행사 프로그램을 적어 놓은 팸플릿을 펼쳐보다 이상야릇한 웃음이 배어나온다. 소위 메이저 단대라고 불리워지는 곳마다 꼭 끼어있는 행사 '야외영화제'를 발견하면서... 5월 대동제 행사 때 첫

선을 보였던 야외영화제, 대부분의 이화인들이 재미있게 보았던 행사였지만 학생회 내부에서는 말도 많았던 행사였다. 글쎄, 안에서 하던 것을 밖으로 끌어왔을 뿐 그리 새로운 것도 아니었는데 왜 그리 거부감이 심했던 것일까.

이번 가을 문화제에서는 최윤교수와 함께 위었던 작가와의 간담회가 성공적이었다. 아마 내년 대동제에는 야외영화제가 성황리에 진행될 게다. 그리고 중앙운영위원회에서는 작가와의 간담회가 조심스레 검토되었지. 올해 치렀던 야외영화제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우리가 행했던 실험정신의 발현체는 항상 주위 사람들에게 우려의 대상이 되어왔다. 초기에는 관심 밖의 대상이었고, 대동제를 전후로는 놀라움과 거부의 대상이었다. 그렇다면 지금은? 글쎄 전부라고 말하기엔 무리가 있겠지만 학생회 사업의 모범사례로 인정받는 면도 꽤 많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학생회 활동의 시야화장도 어느 정도는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아직 딜레마는 해결되지 않았다.

맑스가 생전에 혁명을 보지 못했고 레닌의 현실이 지금은 먼 지향이 되어버렸듯이 이화에서 토양 만들기의 일은 최초로 시도했던 우리가 그 결과를 직접 보진 요원함을 새삼스레 깨닫는다. 이화의 후배들이 적어도 몇 년간은 비전도 보이지 않는 작업을 계속하면서 끊임없는 시행착오를 겪게 될게다. 그리고 올해와 같이 뜻하지 않은 사회의 분위기가 우리의 목을 조르기도 할 것이고,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대답이 바로 한치 앞만을 내다보는 전망일 때도 비일비재 할테지...

사랑하는 나의 후배들여, 그래서 지치고 포기하고 싶어질 때면 아래의 글을 읽어주길 바란다. 타는 목마름으로 써 내려간 이 글을...

모두들 소리를 내지 않기로 맹세한 사냥들처럼 어쨌든 이라는 너무도 평화로운 보인다. 많은 일들이 낯생하고 여전히 문제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라는 시종일관 친목이다. 정당화된 수 없는 비정상적인 현상으로 인해 자꾸만 구석으로 내몰리는 상황을 거꾸러 받아들이고 그 속으로 적응하여 편입된 준비가 되어 있는 듯 보인다. 모든 문제는 개인의 문제나 생각하고 더 이상 이라는 이혼으로 다가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

이러한 풍부한 감성적 창조적인 사고의 정서가 이화 곳곳에서 가능하길 기대하며 바랄지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 분노할 수 있는 이라는 기대한다. 불합리한 사회의 구태의 가치관으로의 적응과 편입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친목을 강요하는 사회체제를 바꾸려는 노력을 시작하고자 한다. 우리는 이제 공룡이 되고자 한다. 비정상적인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공룡은 비록 사라져도 다음대의 진화를 가져온다.

그리고 기억해 달라. 마땅히 끼워맞출 수 있는 표준도 없이 가는 떠난 先경현자의 無에서 나는 어쨌었던 창조의 러정을...

요즘 세미나할 때 무슨 책 보니까?

편집실

I.

“요즘은 세미나할 때 무슨 책 보니까?”라는 질문을 받고서는 내심 당황해 한 적이 여러번 있다. 한번도 아니고 여러 번씩이나 같은 질문을 받고서도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다는 듯이 곤혹한 표정을 짓는 것은 왜일까? 실제로 교양이나 사회과학 세미나의 횡수나 그에 참여하는 인원수나 그들의 열정이 이전만 못하다는 것은 이제 그리 크게 문제가 되는 것 같지 않다. 정작 대답을 망설이게 하는 데에는 아직도 몇년 전에 선배들이 하던 커리큘럼을 그대로 사용하는 데서 나오는 의기소침함과 새로운 커리큘럼을 시도하였으나 알맹이는 없이 잡다한 주제만을 다룰 수밖에 없었던 데서 나오는 한숨이 숨겨져 있다. 또, 2학기 학회의 모습은 1학기의 나름대로 활기찬 모습과는 달리 울썩스런 기미까지 하다. 이렇게 우울한 가을을 보내고 있을 학회 간사들과 가볍게 책 한 권 읽으면서 가을을 보내고자 하는 이들을 위하여 이 글을 쓴다.

여기에서는 이전에 우리가 보아왔던 것과는 다른 구성을 갖고 있는 철학사를 다룬 책 두권을 소개하고자 한다. 쉰 쉰만지 같은 소리나고, 철학은 따분하고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라고, ‘의식화’의 불온 음모가 숨어 있는 것인 줄 다 알고 있다고 투덜거리기 전에 이 글을 읽어보시고 잠깐 서점에 들러 이 책들을 훑어보시기를, 그리고 만약 당신이 이 책들을 읽고난다면, 그리고 당신이 스스로 ‘철학하기’를 할 수 있다면, 적어도 지존파의 표적(?)은 면할 수 있을 것이다.

I.

철학사를 알아야만 하는 이유는 “철학의 역사란 고귀한 정신들의 집합이며, 사유하는 이성 가진 영웅들이 모여 있는 화랑이기 때문이다. 이 영웅들은 이성이라는 덕목을 통해 사물의 본질과 자연과 영혼의 본질, 신의 본질에 접근할 수 있었고, 그 노력의 대가로 우리에게 이성적 인식에 있어서의 최상의 보물을 안겨준 것이다.”

(“해결, 「철학사 강의」 1권 (자클린 뤼스, 「철학의 역사」, 예하, p.

11에서 재인용))

너무나 당위적인 말투로 철학사 학습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이 문구는 말투 그대로 교과서에서나 나올직한 문장이다. 사실 여기에서 소개하려는 책은 프랑스의 고등학교 교과서이다. 자클린 뤼스의 「철학의 역사」(예하, 1993)는 전 15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인간과 철학’ 시리즈 중에 7권으로서, 이 시리즈는 프랑스에서 대입 시험을 치르려면 기본적으로 보아야 할 내용만을 모아 놓은 것이다.

이 책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방대한 철학사를 200페이지도 안되는 문고판 크기

의 책에 간결하게 정리해 놓았다는 점이다. 철학의 시조격인 밀레토스 학파에서부터 20세기의 베르그송, 프로이트, 후설, 하이데거, 사르트르, 푸코까지 3000년에 가까운 역사를 그 철학사상들의 역사적 의미와 당시의 역사적 배경들을 간결하게 짚어 나가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우리네 〈국민윤리〉처럼 주마간산 식도 아니고, 강의 시간에 읽는 두꺼운 철학사 책들처럼 백과사전처럼 나열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또한 운동권 교재로 쓰이는 철학사 책들처럼 마치 맑시즘 이후에는 더 이상의 철학의 발전이 존재할 수 없다는 식의 황당한 소리도 하고 있지 않다. 이 책에서는 “철학의 역사는 진보의 역사가 아니다”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철학사에서 보통의 역사와 마찬가지로 철저히 객관적인 서술이란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얼마전 〈태백산맥〉의 영화상영을 앞두고 벌어진 극우파들의 호들갑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실제로 존재했던 역사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역사 사이에는 간격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이러한 간격은 역사를 서로 달리 인식하고 있는 집단들 사이에는 더욱 크게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책이 갖는 또다른 의미는 편협된 계급 이데올로기로 오염되어 있지만 스스로에게 神의 완전성을 부여한 맑스주의적(?) 혹은 스탈린주의(즈다노프주의)적 철학사 파악에 반성과

실제로 존재했던 역사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역사

사이에는 간격이 존재할 수밖

에 없는 것이며, 이러한 간격

은 역사를 서로 달리 인식하

고 있는 집단들 사이에는

더욱 크게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철학사를 알아야만 하는

이유는 철학의 역사란 고귀한

정신들의 집합이며, 사유하는

이성을 가진 영웅들이 모여

있는 화랑이기 때문이다.

해체의 기회를 부여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사실 스탈린의 『변증법적 유물론과 사적 유물론』(두레)에 기초한 소련의 디아마트와 히스토마트야말로 소련 학자 간의 철학적 타협의 산물이었다. (diamat와 histomat는 소련공산당의 정식화된 변증법적 유물론과 역사적 유물론에 대한 비속어이다. 그리고 이것이 철학적 타협의 산물이라는 점은, 윤소영, 『알튀세르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문학과 사회』 4호 참조. 우리나라에도 번역되어 있는 『철학의 기초이론』(두레)이 그 타협적 산물의 대표적인 예이다.)

굳이 자를린 퀴스의 관점을 규정하자면 1968년 5월을 전후하여 프랑스에서 만개하였던 신철학파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1968년 5월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이 맑시즘 혹은 사회주의에 대하여 근본적인 비판을 현실적으로 수행했다면, 이들은 구좌파에 대한 이론적 비판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책은 함께 같은 시리즈의 다른 책들 중에서 관심 가는 분야(육망, 논리, 자유, 문화, 언어, 노동, 지식/권력 등)의 책과 함께 읽는다면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III.

“철학사를 연구한다는 것은 철학의 역사 안에 그려진 그 경계선들을 찾아내고, 그 경계선마다 새겨진 의미를 읽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사고할 수 있는 다양한 영역들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나아가 자신의, 그리고 인간의 사고를 ‘극한(limit)’까지 밀어붙여 보는 것입니다.”

(이진경, 『철학과 굴뚝 청소부』, 새길, 17쪽)

이진경의 『철학과 굴뚝 청소부』(새길, 1994)는 근대 철학이 자신과 중세 철학 사이에 만드는 ‘경계’를 통해, 그리고 탈근대적 문제 설정이 근대 철학을 넘어서려 하면서 만들어낸 경계를 통해 철학의 역사를 서술하고 있다. 저자는 이런 점에서 이 책의 주제는 분명 ‘철학의 경계’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계를 확인하고 의미하기 위하여 알튀세르의 문제 설정(problematique)이라는 개념을 차용한다.

그는 근대철학의 출발점으로서 데카르트로부터 출발하여, 유명론과 경험론, 독일의 고전철학 등을 두루 거치면서 기존에 근대철학의 범주에 속했던 사상들을 각각의 상이한 ‘문제설정’들을 비교·검토한다. 이어서 알튀세르가 근대철학으로부터 매도당했다는 이유로 사생아로 칭한 마스, 프로이트, 니체를 (근대철학의 해체)라는 장에서 살펴보고 있다. 이후에는 철학이 자원을 끌어다 쓸 마지막 과학이라는 언어학과 관련된 장으로 홀볼트, 소쉬르, 비트겐슈타인 등의 이론을 살펴보고, 끝으로 흔히 4대 구조주의자라고 칭해지는 레비스트로스, 라캉, 알튀세르, 푸코의 이론들을 살펴보고 있다.

이 책의 장점은 저자가 책의 머리에서 밝힌 경계확인과 문제설정이란 개념들을 책의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이를 통해 각 철학자 간의 유사성과 차이점들을 밝혀내고 선을 그음으로써, 책 전체를 통하여 근대 철학이 기반하고 있는 모더니티란 어떠한 것들로 구성되는가? 라는 물음에 답하고자 하고 있다.

이 철학적 근대를 특징짓는 근대적 문제 설정은 주체의 통일성과 중심성을 가정하며, 그것을 개념적 연역의 출발점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학이란 기준으로 판단하거나 정당화하는 ‘과학주의’라는 특징과 인간의 몽매한 삶과 실천 역시 이 이성의 빛에 의해 계몽되어야 한다는 ‘계몽주의’의 특징을 갖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처럼 ‘주체’라는 범주가 선험적인 출발점이었던 근대철학과는 달리 탈근대적 문제 설정들에서 주체는 여러가지 요인들의 결과물로서 구성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탈근대적 문제 설정들에서 지식은 주체를 구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담론’으로 정의되며, 지식은 그제 참이든 거짓이든 간에 그제 야기하는 효과가 무엇인가를 통해 사고된다.

이 책에는 어려워질 수 있는 논의를 다양하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예들을 통해서 독자들이 큰 어려움 없이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한 지은이의 흔적이 역력히 배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이 책에 대한 논의는 ‘맑시즘과 근대성’이라는 우리 시대의 ‘뜨거운 감자’를 소화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꼭 필요한 예음길(우회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에 대한 논의는

‘맑시즘과 근대성’이라는

우리 시대의 ‘뜨거운 감자’

를 소화하기 위한 전 단계

로서 꼭 필요한 예음길(우

회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의 장점은 저자가

책의 머리에서 밝힌 경계확인

과 문제설정이라는 개념들을

책의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

게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홍규희(경영 92)



아름다운 청년
영화 전태일

기획(주) 기획시대
제작 전태일 기념사업회
주최 영화전태일 사회위원회

우리가 살고 있는 1990년대라는 시대는 참으로 묘한 구석을 가지고 있다. TV에서는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신세대가 되도록' 강요하는가 하면, 그와는 정반대로 복고풍의 유행이 거리를 휩쓸고 지나가기도 한다. 정의나 진리 따위는 고리타분한 이야기처럼 들리며, 아무도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인지' 명확한 대답을 제시하지 못한다. 급변하는 사회상에 그대로 휩쓸려 버리는 것에 안심하면서도—나도 유행에 뒤지지 않고 있다는—, 동시에 웬지 모르는 불안감을 감출 수 없는 모습. 그러한 불안을 스스로 해결하려 하기 보다는 무언가의 매개체를 통해서만—술, 노래, 악세사리 등—발산해 버리는 모습에서, 우리는 속빈 강정같은 이 시대의 허상을 볼 수 있다. 그 허상

속에서도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발현되든 간에 어쩌면 삶에 대한 애착이며 애정 일런지도 모른다. 사회가 혼란해질수록, 사람들이 환상처럼 가지고 있는 진실한 것의 동경은 강화되기 마련이니까.

영화 전태일

진실한 삶을 사랑했던, 또한 그것이 녹아들어 있는 사회를 너무나도 사랑했던, 전태일이라는 노동자가 있었다. 침묵하는 사회에 불을 지르는 막대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 그 자체로도 그는 널리 알려졌었다. 그러나 그의 인간적인 측면은 보지 않고, 사회에 끼친 영향만을 이야기 하는 것은 그리 달갑지 않은 접근 방법이다. '나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자만심으로, 그를 우리와 별 상관없는 한 명의 노동자일 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므로, 어느 시대건 변하지 않고 흐르는 것은 인간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다. 우리는 한 명의 노동자의 삶을 통해 개인의 진실을 뛰어넘어 사회의 진실을 실천하고자 했던, 의지를 본다.

노동자이기 이전에 인간으로서의 그의 삶과 사상을 알게 해 준 것은故조정래 변호사가 쓴『전태일 평전』이었다. 이 책은 수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며 그의 외침을 후세에 전해주었다. 또한 지금은 전태일을 영화화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영화라는 매체는 책과는 또다른 의미를 지닌다. 영화 기획의도를 잠시 살펴보자.

"예술이란 항상 그 시대 대중들에게 더 나은 가치를 제시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진지한 삶과 무언가 소중한 것을 위해 맘을 흘리는 값어치 있는 노력, 이러한 인간의 모습은 시대를 초월하여 대다수 대중들에게 아름다움의 정서를 불러 일으킨다. 지울 수 없는 아픔으로 간직된 1970년대의 상황속에서 눈물나는 노력과 헌신으로 세상을 살아갔던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은 감동으

로 관객들에게 다가갈 것을 우리는 절대 의심하지 않는다.

전태일을 전혀 모르는 젊은 사람들, 수많은 전태일의 희생과 결과물인 오늘의 풍요를 누리고 있는 요즘 신세대들, 전태일의 이름을 기억하며 그의 아픔을 함께 품고 7.80년대를 살아온 3.40대들, 이 모두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영화! 이것이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영화 전태일이다."

전태일을 영화화 하려는 움직임은 지금까지 많이 있어왔었지만, 거의 현실화 되지 못했다고 한다. 여러 사회적인 상황상 만들어 봤자 왜곡될 것이 뻔하다는 전태일의 어머니, 이소선 여사의 판단때문이기도 했다. 이번 영화의 제작은 전태일 기념사업회에서 박광수 감독에게 영화제작을, '기획시대'에 기획을 제안하는 것으로 현실화 되었다. 영화는 현재 제작의 측면에서는 시나리오 구성이 끝났으며, 기획사에서는 영화제작비 모금에 힘을 쓰고 있다. (영화는 진실을 담기를 원한다면, 흥행성을 목표로 사회의 구미에 맞는 영화를 만들게 되지 않으려면 제작비 모금은 필수적이다. 이 영화에 어느 재벌 회사가 돈을 대 주겠는가.)

대중매체가 사회와 주고받는 영향은 지대한 것이다. 영화라는 매체 역시 사회의 문화와 상호작용을 한다. 사회에서 강하게 요구하는 것을 환상처럼 보여주기도 하지만, 영화를 통해 사회의 문화를 예리하게 꼬집고 대안의 실마리를 남겨주기도 한다.

전태일이 영화화 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자. 예전에는 불가능 했던 일이 지금은 가능하다고 해서, 현재의 사회상황이 "저건 예날 예긴 걸 뭐..."하는 식으로 바뀌었다고 할 수는 없다. 아직 까지도 전태일은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990년대—이 시대에서 전태일이라는 사람이 영화화 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내죽음을 헛되이 말라

친우여, 나를 아는 모든 너여.

나를 모르는 모든 너여.

이 순간 이후의 세계에서

내 생애 다 못 국헌 명어는, 명어는

목적지까지 굴러려 하네.

이 순간 이후의 세계에서 또다시 추방한다 하

며나도

굴러는데, 굴러는데, 도울 수 있다면.

-전태일의 유서中에서

전태일은 스스로를 "전체의 일부인 나"로 파악하고 이 세상 사람과 자기를 일치시켰다. 그는 하루 노동 15시간에 커피한 잔 값 밖에 안되는 일당, 종업원 모두가 직업병 환자가 되어 버리는 평화시장에서 노동자 생활을 했다. "평화시장 종업원 중 경력 5년이상 된 사람은 전부 환자이며, 특히 신경성 위장병, 신경통, 류머티즘이 대부분임." 이것은 그가 1970년 조사한 내용이다. 전태일은 그 말도 안되는 현실이 부당하다고 느꼈고, 그것에서 멈추지 않고 자신의 생애를 내던져 가며 사회와 싸웠다. 근로기준법을 공부하기 위해 대학생 친구가 한 명만 있어도 좋겠다는 그의 말에서, 우리는 침묵하는 지성에 도전장을 던지는 그를 본다.

세상 사람들과 자신을 일치시킬 만큼 그는 사회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고, 그 애정이 컸던 만큼 자신의 생애를 과감히 포기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현재 살에의 안주는 약물중독과 같은 것이다. 조금씩 받아먹을 때는 알지 못하다가,

치명적인 해가 되어서야 후회하는 것은 사회에 대한, 세상 사람들에 대한, 자신에 대한 애정이 아니다. 우리가 만약 그 시대에 대학을 다녔고, 전태일의 '대학생 친구가 있었다면' 하는 말을 들었었다면, 그 치절한 외침을 귀를 닫고 대학이라는 공간을 단지 취업을 위한 예비단계로 생각할 수 있었겠는가. 현재의 우리 모습을 생각해 보자. 각종의 상업 문화가 학교앞 거리에서 판을 치고 있다. 또한 우리는 도서관에 가서도 토플책과 영어 듣기 테이프에 만족하지 못한다. 도서관에서, 학교 밖의 상업문화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이 공간에서, 우리는 발디딜 틈을 찾지 못한다. 내가 생각했던 대학은 이렇게 아니라는 외침은 1학년 초기 빨리 포기해 버릴수록 좋은 것이 되어 버린다. 우리는 불만감을 느끼고 있다. 필요한 것은 취업문제에 시달림을 받고 학교 밖의 상업문화에 폭 쏘아 버리면서 다시 한 번 소외감을 느끼는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그것에 최대한의 열정을 가지고 대항해 보는 당당한 모습이다. 전태일이 상대했던 것이 눈에 보이는 악덕한 기업주와 권력이었다면, 어쩌면 지금 우리가 상대해야 하는 것은 이미 생활 깊숙히 파고 들어있는 안이함과 결국은 그것을 가장한 현실에 의 안주인 것이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온 몸 가득히 유행의 최첨단을 따라가는 외모에서 나오기 보다는, 자신의 삶을 사회속에서 녹여내면서, 그것에 애정 어린 시선을 보내는, 그 안에서 불만을 깨보고자 하는 모습에서 보일 수 있다. 그는 아직도 우리귀에 속삭인다.

"내 죽음 헛되이 말라."

1. 학생회비 상반기 결산

1) 총학생회 운영비	
일반용품 및 사무용품(컴퓨터 구입)	1,180,000
회의자료 인쇄 및 복사	1,273,200
신문, 잡지 구독료	370,000
도서 및 자료 구입	72,000
난방연료비	197,200
활동비(교통비, 섭외비, 평가회비)	898,700
전학대회(자료집 발간)	300,000
교내용원잔치(교내용원들에게 지급되는 선물)	200,000
계	4,491,100
2) 기획사업비	
출범식	2,359,700
4.19 마라톤	2,880,000
대동제	24,535,000
각종 강연회(May Day 간담회)	500,000
하기대학	3,000,000
계	33,274,700
3) 연대활동비	
춘계농활(지원비 및 자료집 발간)	600,000
하계농활(버스대여료, 도시락값, 농활학교 등)	5,000,000
도시빈민활동(자료집 발간)	300,000
계	5,900,000
4) 단위활동지원비	
EBS 방송제 지원	1,000,000
계	600,000
계	1,600,000
5) 배제 발간비	
자료집	1,750,000
일상홍보	1,345,000
월간지('이화의 활발' 발간)	2,780,000
계	5,875,000
6) 생활도서관, 시내마메고 등 공약사업	
생활도서관 지원	1,500,000
시내마메고 지원	1,500,000
계	3,000,000

합 계 54,140,800원

총수입 - 총지출 = 2,549,390(2학기회 이월)

2. 학생회비 2학기 예산

1) 총학생회 운영비	
회의, 행사 준비자료 인쇄 및 복사	1,000,000
신문, 잡지 구독	200,000
연료구입	200,000
계	1,400,000
2) 기획사업비	
총학생회장단 선거	4,500,000
가을 문화제	6,000,000
여성주간 행사	7,000,000
95년 신입생 예비대학 예치비	4,000,000
계	21,500,000
3) 연대활동비	
추계농활	700,000
동계농활	300,000
계	1,000,000
4) 단위활동 지원비	
EBS 가요제 지원	1,000,000
계	1,000,000
5) 매체 발간비	
월간지('이화의 활발' 발간)	2,000,000
계	2,000,000
6) 생활도서관, 시네마테크 등 공약사업	
생활도서관 지원	1,500,000
시네마테크 지원	1,500,000
계	3,000,000
합 계	30,400,000원

학생회비 : 27,000,000원
 이월금 : 2,549,390원
 장학금 : 1,000,000원
 계 30,549,390원

마음이 통하고, 사랑이 넘치는 ———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문화기업
 국악인 홍시영, 한국예술인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활동비를
 지원받아 활동에 기여합니다.



고객관리선언
 3대 고객관리선언, 업계최초
 가격인하단행 등 앞서는 행동으로
 고객만족을 실현합니다.



세계기업
 삼성전자는 이미 세계적인 기업 —
 세계적인 함께 만들고 세계적인
 함께 보고 있습니다.



신명나는 삶터
 학업·생활·취업 등을 떠나
 한가롭고 여유로운 신명나는 삶을
 만들어갑니다.

신경영 실천 1년의 성과 —

제1회 대한민국 기업문화상 삼성전자 大賞수상!

신명나는 삶터,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기업정신 —
 여기서 월드베스트가 시작됩니다.



가업이념, 고객만족, 기술개발, 노사관리,
 사회공헌 등 총체적 기업문화발전에
 아끼지 않은 기업에게 주는 대한민국
 기업문화대상 —
 문화체육부가 올해 처음으로 제정한
 이 상에서 삼성전자가 영예의 大賞인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이제, 삼성전자는 한가롭고 여유로운 문화
 다육 신명나는 삶의 타전을 가꿔나갑니다.
 *월드베스트는 세계 최고 제품이란 뜻에 삼성전자의
 자존심입니다.

세계 1등 제품만을 만들었습니다

SAMSUNG

삼성전자